

B 19 - 61

인권정보자료실  
AY.b.7

# 양심군모 자료집

양  
심  
군  
모  
자  
료  
집

94 · 봄

AY.b.7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1994년 봄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 내 딸

이 시는 12월 4일 대정부촉구대회에서

1.

안방인 줄 알았어  
당신의 젓가슴을 더듬다  
곤히 잠든 동지를 깨운 새벽  
아이가 보채지나 않을까  
문득 전화를 걸고 싶었지

당신을 만난 지도 어느새 2년째  
우리의 아이를 낳은 지도 한달하고도 보름  
김치찌개란말이 뻥한살림인데도  
남 부럽지 않았어  
어치피 평생의 안락이야  
일찌감치 저버리고 걸어온 고난의  
길  
감옥살이 쇠창살도  
당신을 만나기 위한 그저 작은 관문이었을  
뿐  
사랑한다는 것  
어쩌면 사치였는지도 몰라  
넌 모래먼 서른이 다 된 녀석이  
사랑하는 아내 웨딩드레스도 입혀  
주지 못하고  
남들처럼 뚝뚝하게 혼인신고도 못  
올리고 살아야 하는  
이런 빌어먹을 놈의 세상  
우리 아이도 알고 있을까  
제 아비가 징역도 모자라 군대로  
가야하는  
지저리 못한 놈이라고  
뭣하러 지기를 낳았냐고  
미워하지는 않을까  
그래도 우리의 보금자리

# 해인아 !!!

박영태-진근영 부부가 낭독한 시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세석구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는데....

2.

연락하지 않으려 했어요  
늦게 결합한 것도 미안한데  
우리 땀에 힘이 생겼다면 고마와 하던동지  
들에게  
오히려 더 속스러웠다던 당신의 말  
아이의 기침이 심해질수록 생각났어요  
당신만이 아닌 슬한 젊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국방의 의무인가요  
무엇이 조국을 위한 일인가요.  
출생신고는 커녕 시부모님 품에  
안겨드리지도 못한  
우리 아가  
아무리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결실이라지만  
기침과 함께 알아버릴 것 같은 이  
기막힌 세상  
말도 안되는 이별 대신  
제발 좋은 것만 보고 자라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부모들이 싸워 이렇게 좋은 세상 만  
들었나  
역사이야기나 들려주며  
피아노, 그림공부 재주껏 살아가게 하고 싶  
어요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과 나의 품에서...

3.

내 딸 해인아  
너의 이름은 네 엄마 곱던 손이  
인간해방을 위해  
보도불력을 깨던 시절  
청춘이 담긴 이름이란다.

내 딸 해인아  
너는 아직 네 아빠의 손에 달린  
모빌 밖에 볼 수 없지만  
네 아빠의 손은  
노동으로 빛나는 미래를 담고 있다.

지금은 비록 못난 애비일지라도  
동지들이 있기에  
스치로폴 바닥도 따뜻하단다.

온기없는 방안도 춥지 않단다.  
고통으로 단련된 세월  
아직은 못난 부모일지라도  
우리세석구 나란히 호적에 오르고  
옛 싸움의 전설들로 도란 도란 깊어가는 저녁

오랜만에 찾아온 동지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자랑하는 그날  
내 딸 해인아  
그날이 오면  
우리 아빠 이름은 박영태  
우리 엄마 이름은 진근영  
내 이름은 박해인이라고  
자랑스레 외쳐다오!!!

이권 자료실	
번호	호
BIP	61

# 양군모 자료집 1994년 봄

인권 자료집		
등수	성명	부서

2	여는 시 <b>내딸 해인아</b>
4	목차
6	사진글 <b>청춘은 예술보다 아름답다</b>
10	발간하며 <b>외롭지만 가야했던 길</b> 김정훈대표
12	여는글 <b>양심군 문제는 한국인권상황의 한단면</b> 김재열 대책위공동대표
14	기획마련 <b>하나.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성격과 의의에 대하여</b> 기획실
	<b>둘. 양군모 투쟁 총평 좌담회 셋. 젊은이들에게 주는 글</b>
	희망의 깃발을 다시 세우자 김근태 선배님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살 수 있다 김상복 목사님 곳곳하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정대철 국회의원
	<b>활동보고와 평가 I</b>
53	정치여론전 기획부
72	양군모 조직은 이랬다 조직부
87	언론사업 활동 경과 및 평가 언론반
97	사진글 <b>올 연말엔 어머니</b> 활동보고와 평가 II
101	<b>사무국 사업 보고서</b> 사무국
111	<b>종교인서명 이렇게 이루어졌다</b> 종교인 서명 대책반

<b>국회사업 보고드립니다</b> 국회별동대	115
<b>교수님과 함께 한 양군모</b> 교수님 사업 별동대	119
<b>삼각지, 1993년 겨울 새벽</b> 국방부 별동대	122
<b>병무청 사업보고</b> 병무청 별동대	125
<b>문민요새 청와대사업 보고</b> 청화대 별동대	128
양군모 글마당	
<b>제언 들꽃에서 피어나 다시 들꽃으로</b> 오기형	130
<b>시 올 연말에 어머니</b> 황순주	133
<b>수필 양군모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b> 이상봉	134
<b>수기 나의 작은 소망 하나</b> 임덕규	140
<b>시 여의도 농성장을 뒤로 하며</b> 석용희	146
<b>야사 양군모가 누구지?</b> 김성중	151
<b>양군모 투쟁일지</b>	161
주요자료연음	
<b>1. 청원서 제출에서 국회통과까지</b>	166
<b>2. 건의문 및 탄원서</b>	
<b>3. 성명서</b>	
<b>4. 언론을 통해 본 양군모투쟁</b>	

# 청춘은 예술보다 아름답다.



.....

비록 서투른 몸짓이지만  
우리는  
생존의 끄트머리에서  
진실을 외친다.  
살은 예술보다 아름답다.



누가 있어서  
별목의 족쇄가 녹슬게를  
기다리는가  
새벽을 거슬러 오르는  
한강의 칼바람에  
국방부의 어짐을 찢고  
모든 억압의 족쇄를 끊는다.  
부·당·장·집·철·폐



문민정부라 하지만  
민중의 머리위엔  
여전히 지배자의 권자가  
놓여있고 그 자리엔  
그 때 그사람이 앉아  
장집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우린 이겼다.  
 비록 완전한 예방은  
 아니지만  
 더 큰 예방을 맞이하기 위해  
 문민의 허상을  
 보았고, 하여  
 우리는 승리하였다.



# 양군모 자료집

이 책을 나라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께 드립니다.

.....1·9·9·4 / 봄.....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 외롭지만

이제 1년이 넘는 우리의 투쟁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아쉬움과 아픔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남긴 채 우리는 사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1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내일의 마지막' 이라는 비장함을 품은 우리들에겐 하루하루가 투쟁과 고민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우리들의 사업과 동지애를 여기 백서에 담아 500여 청년양심수들을 지켜봐 주셨던 많은 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 양심수의 부당징집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군에 안 가겠다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마저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는 실망도 컸겠지만 합리적인 근거와 선례, 대안이 필요하다는 충고로 알고 법전을 연구하고 선배들의 자문을 구하고 선례를 찾았습니다.

추상적인 주장이 아닌 합리적인 논리, 문제제기에 머무르지 않는 대안의 마련-- 이것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온 첫번째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주장의 합리성을 실현하는 데서도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많은 선배들의 충고는 뭐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답답함을 가중시킬 뿐 해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무수한 시도-좌절-평가-자기반성-계획의 과정을 되풀이 하면서 우리는 독특한 방식을 체계화 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여론의 승리가 관건이며 모든 사업은 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50여 교수님들의 건의서 제출과 이를 통한 전국 대학총장님들의 동참, 국회의원 165인의 지지서명과 이를 통한 국회 청원통과, 2000여 성직자들의 건의서 제출 및 지지 기자회견 등 지금 생각만 해도 불가능한 것만 같은 일들이 바로 정치여론의 중요함을 깨달은 500여 회원들의 노력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내용-합리적인 방식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원



김정훈  
양심수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대표

## 가야했던 길

들간의 민주성과 튼튼한 단결이었습니다. 회원들이 모두 학생회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의지가 굳은 뛰어난 청년들이기도 했지만 말로 논쟁하기 보다 공동의 실천에 근거한 공동의 평가로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맡아 책임있게 수행하면서 누구 하나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생활과 사업 속에서 느낀 것이 혈육과 같은 단결력을 만들어 낸 원인이었습니다.

내용-방식-주체, 이 세가지가 조화를 이룬 것은 우리에게 국방부의 발표보다 더욱 소중한 성과이며 이는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안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젊은 이들이 일정한 성과를 내기까지 고민하고 실천했던 짧은 기간의 경험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선별적 조치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들 흔쾌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의 한계를, 청년들의 진취성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했던 회원들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 시내의 모든 도서관, 심지어 자료실까지 다니면서 내용을 만들고 국회의원 회관에 매일 출입해 직원인줄로만 오해받기도 하고 서울거리를 하늘만 보고 다니면서 십자가만 눈에 띄면 찾아가 목사님을 설득해 건의서를 받고 했던 회원들, 그리고 회원들의 식사준비와 빨래를 전담하느라 햇볕을 보지 못해 하얗게 뜬 회원들.

이제 우리는 양심수 부당징집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조국의 통일, 그리고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새로운 장으로 갈 것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튼튼한 동량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선생님들,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 사회단체에 몸담고 계신 선배님들과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저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양심수군문제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70년대 유신정권 시절과 80년대 전반기 5공화국과 후반부인 6공화국은 군사정권이 계속된 강압적 분위기가 20여년간 지속된 분위기였다. 당시의 정권들은 한결같이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압정치를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당시의 정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하였으며,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부터 가족, 친지, 동료들이 입은 직,간접적 피해는 더 많은 것이다.

당시의 절대권력에 대해서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서 외로운 저항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은 단연 청년 대학생들을 들 수 있겠다. 이들은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순수한 정열과 정의감으로 바위와 같은 권력에 대하여 몸을 던져 오직 민주화를 외치며 많은 희생을 겪었다. 청년 대학생들의 이같은 외로운 싸움은 바위와 계란을 던지는 격이었으며, 그들 스스로가 이를 더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바위에 얼룩은 진다"는 신념으로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 역대의 정권들은 대학생, 특히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강제 군대입영조치를 통해 그들의 계속되는 민주화 흐름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학생들이 군대에 들어가면 보안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 이들이 군대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군사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군복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누구나 그 의무감을 다하는 것이며, 대학생들 역시 그 기본 책임감에 대해서는 확고하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부당징집이라는 정권안보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병역법 시행령의 변천사를 보면, 유신정권이 한층 고조에 달했던 1975



김재열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 복귀를 위한 대책위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 한국 인권상황의 한 단면

년 전에는 6개월 이상 징역선고자는 소집면제가 되었으나, 5공화국 중반에 들어선 1984년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만이 소집면제가 되었다. 이것은 병역법으로도 통제가 안되므로 형량을 늘려서 적용한 것이다. 역시 6공화국에 들어서도 2년 이상 징역 선고자에게만 소집면제를 주었으며, 일정기간 형을 살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되어 이들이 당한 정신적, 시간적 고통은 더욱 심했으며, 이것은 병역법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유신시절보다 더 악화된 것이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한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6공화국 군인정치에 의해 희생되어 부당한 수형생활을 겪고도 다시 군에 징집되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무려 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부당한 징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병역법 시행령 103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0월 8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측은 '합산하여 2년 이상의 수형자에 대해서 병역면제를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였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여명 가운데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여전히 과거에 있으며, 새로이 변화를 시도하는 개혁의 흐름과도 무관한 반응이다. 올해 1994년 2월 16일 국방부는 '지난 과거에 대한 치유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라는 발표를 했으나, 매우 미흡한 조치로 그 해당 대상자도 30%에 못미치는 숫자이다. 또한 27세 이상자 중 1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보충역 처분을 한다는 것은 조속한 사회복귀와는 무관하며, 27세 미만 대학 졸업자의 경우도 18개월 방위라 할지라도 군복무 후 제대를 하면 결과적으로 취업연령 초과의 문제가 생기며, 27세 미만자 중 1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민자당과 민주당, 국방부 그리고 국회 국방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 고통받고 있는 500여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은 더욱 커지며,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화합의 차원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다. 「양심수 군문제」는 한국 인권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원스런 해결을 기대한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한 문민정부가 들어서 역대의군사정부가 공안통치를 통해 위기감으로 정치를 해왔던 과거를 정리함에 있어서 「양심수 군문제」 해결에 결말을 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점에서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문민정부는 개방적이며 희망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는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구제와 치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기획마련 하나

# 청년학생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성격과 의의에 대하여

기획실

## 1. 문제의 출발점

지금까지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 징집 문제는 군사정권이 교체되거나 또는 군사정권의 위기에 일시적인 유화조치가 취해 질 때마다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역대 군사독재 정권과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이 쌍생아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신 정권 이래로 군사정권은 청년학생들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병역 의무를 교묘히 이용해 왔으며, 합법이라는 틀을 가장하기 위해 병역법을 개악해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많은 청년학생 양심수들을 강제 징집하고, 녹화사업, 프락치 공작, 반국가단체 조작, 의문사등을 자행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민주화 운동 탄압과 정권 안정을 위해 병역법을 개악, 강제징집을 자행한 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군사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부당징집 철폐는 단골 메뉴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또 그 때마다 일시적으로 강제 징집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6공화국도 예외가 아니다. 87년 6.10 민중항쟁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에 성공한 군사정권은 여소야대라는 정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일시적인 유화조치를 취하였

다. 그러나 89년 3월 노태우 정권은 이른바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또다시 대대적인 민주 세력에 대해 탄압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탄압은 3당 합당을 통해 상대적인 정권안정을 획득하면서 6공화국 말기까지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사정권이 강제징집을 통해 각종 프락치 공작과 조작사건, 의문사등을 자행해 왔음은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을 통해서 익히 증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6공화국 하에서 수차례에 걸친 군인과 전경들의 양심선언들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 군사정권의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부당징집과 탄압의 실상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7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사회각계로부터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징집 철폐를 요구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500여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근 1년여 간에 걸친 투쟁을 통해 아쉽게는 하지만 마침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1년여 간의 청년학생 부당징집 철폐투쟁을 총화하고, 이후 병역법 개악과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군부내의 부당한 탄압을 근절키 위해, 역대 군사정권이 벌여온 부당징집 실태와 93-94년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 투쟁의 경과 및 의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단 93-94 투쟁의 평가에 있어서는 투쟁의 구체적인 활동보다는 투쟁의 성격과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군사정권의 청년학생 양심수에 대한 부당징집 실태와 병역법의 개악

1) 청년학생 양심수의 강제징집 및 병역법 개정의 역사  
청년학생들에 대한 강제 징집과 그 철폐투쟁의 역사는 유신정권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75년 7월 유

## 강제징집의 역사는 유신정권에서 비롯된다

신정권이 대학생들의 유신철폐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처음으로 병역법을 개정, 강제징집을 시작한 이후로, 5공화국과 6공화국에서도 계속되었고, 그 방법 또한 더욱더 교묘해졌다. 반면 민민운동이 대중적으로 성장하여 군부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려 할 때마다 맨 처음 제기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징집 철폐였다. 그리고 군부정권은 위기 모면을 위해 매번 일시적인 유화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6공화국까지 세차례 이루어졌다. 아래에서는 유신정권에서 6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강제징집 역사와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겠다. (아래 표 참조)

유신 1기(75년 7월 10일 이전)	6개월 이상 실형선고자는 죄질을 불문하고 소집 면제
유신 2기(75년 7월 10일 이후)	6개월 이상 실형선고자중 대학생은 여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역 입영.
5공 1기(84년 5월 25일 이후)	유신 1기와 같음.
5공 2기(84년 5월 25일 이후)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은 집시법을 제외한 10개 특별법(국보법 포함)위반자는 면제. 단 집시법 위반자는 3년 이상만 면제
6공 1기(88. 8. 1 - 89. 3. 25)	죄질에 상관없이 1년 이상 실형 선고자로서 2년 이상 집행유예자 면제.
6공 2기(89. 3. 26 - 94. 3. 31)	2년 이상의 실형선고자만 면제--집행유예자 제외. 단 2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은 누범, 폭력범등 17종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영후순위제도'와 '장기대기면제 제도'를 통해서 소집면제함.

[표] 수형자 처리기준 변천사-병역법 시행령 및 예규 변화과정



①유신정권(76-79)

1975년 7월 10일 이전에는 병역법 시행수칙 중 현역입영 면제 대상 부분에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죄질을 불문하고 현역 입영 부적격자로 판정, 보충역으로 편입시켜 소집면제 조치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75년 5월 이후 긴급 조치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학생들에 대하여 현역입영시려고 하는 의도로 동년 7월 10일 이전의 시행세칙을 변경하여 '대학생 현역입영 대상자중 여타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입영'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당시 석방되었거나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대학생들을 입영조치하려 하였다.

그러나 유신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79년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긴급 조치 위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병역문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1년여간의 투쟁끝에 결국 시행 세칙을 75년 이전의 원칙대로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징집

을 면제한다는 데에 입각하여 이들은 보충역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②5공화국 초반

전두환 정권은 민족민주 운동 진영, 특히 학생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정책으로 (1) 제적·구속처리와 (2) 지도휴학·강제징집의 두가지 방법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군대입영이라는 교묘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회와의 완전한 차단속에서 갖은 비인간적 대우와 공작이 자행되었던 바, 그것이 바로 '녹화사업'과 '프락치 강요공작' 등이었고, 심지어는 군부정권의 폭압구조 속에서 군대내 의문의 죽음으로 암장되기도 하였다. 88년 정부 발표에 따라 경우, 80년 5.17 이후 83년까지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추방당한 학생들은 모두 1,800여명이며, 그들 중 1,363명이 제적되거나 구속되고 나머지는 강제징집되었다. 82년 9월부터 84년까지 강집된 학생들은 447명이고 이 중 269명에 대해서는 '녹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안사령부(현재는 기무사)는 82년 9월계부터 위의 '녹화사업'을 전담하고 특별심사과를 신설, 순화 사업과 관계 프락치 공작 사업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특수학적 변동자'로 처리시킨 후 강제 징집된 학

생들에 대하여 군사당국이나 보안사는 녹화사업을 통하여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으며, 프락치 활동을 통한 정보제공, 수집, 보고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강제징집자에 대한 녹화사업과 프락치 강요 공작은 대상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와 정신적 황폐화를 안겨주고, 끝내는 6명의 젊은 생명을 의문사로 암장시키고 말았다.

다음은 강제징집과 관련하여 군대내에서 의문사한 열사들의 명단이다.

- 김두황 (이병. 고려대생. 83. 6. 18)
- 한영형 (이병. 한양대생. 83. 7. 2)
- 최은순 (이병. 동국대생. 83. 8. 14)
- 정성희 (이병. 연세대생. 82. 4. 23)
- 이운성 (병장. 성균관대생. 83. 5. 4)
- 한희철(일병. 서울대생. 82. 12. 11)

이 시기의 징집에 있어서 부당성, 불법성, 강제성은 다음의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강제징집의 예비단계인 '지도휴학'에 있어서의 불법, 강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 이후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총장이 학생을 휴학시킬 수 있는" 조항을 삽입 한 이후 각종 정보, 사찰기관에 [문제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은 물론 지도교수나 학부모와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경

찰에 연행된 직후 곧바로 강제 입영시킨다. 이때 '지도휴학제'의 학칙은 학교당국이 강집된 학생들에 대한 사후처리로 발동시키게 된다.

두번째로는 병역법의 입영절차를 일체 무시한 징집이 실시되었다. 병역법 시행령 제 9조 및 제 21조에는 "신체 검사 통지서는 실시일로부터 20일 전 송달"과 "입영영장은 입영일로부터 30일전 송달" 규정을 전면 위배하고 경찰에 연행된 직후 신체 검사도 없이 곧바로 강제입영시켰다.

세번째로는 '신체상 결격사유로 인한 군 입영 대상에서 제외'의 경우에도 강제입영되었다는 점이다. 특수학적 변동자들에 대해서는 군의관들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사기관의 압력에 의해 강제징집 당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성균관대의 최경식(81학번 국문학과)씨이다. 최경식씨는 당시 키 153cm, 몸무게 43kg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영되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녹화사업, 프락치 강요공작등의 불법, 가혹행위 등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③5공화국 중·후반

83년 12월 말, 전두환 정권이 구속자 석방, 제적생, 해직교수 복교, 학원상주 경찰 철수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학원자유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이른바 유화국면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는 80년의 좌절을 극복

하고 꾸준히 성장해 온 민족민주운동을 기본 동력으로 미국-전두환 정권의 지배전략상의 요구와 결합되어 취해진 것이다. 즉 80년 초기의 신냉전 기류가 일정정도 완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접근함에 따라 한반도의 부분적 긴장완화를 필요로 하게 된 미국의 극동정책상의 요구와, 85년초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어 정권의 정통성을 가장하여는 미국-전두환 정권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기만적인 민주화 체스추어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유화국면 조치 이후 전두환 정권은 민족민주 운동의 일정한 고양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일련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학원안정법'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이 그것이다. 전두환 정권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전에는 실형 6월 이상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징집을 면제하던 것을 이후부터는 징집법 등의 시국사범의 경우에만 실형 3년 이하는 모두 징집되는 것으로 개악한 것이다. 당시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실형 3년 이상을 선고 받기는 현실적으로 드문 경우였음을 상기할 때, 이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합법을 빙자한 탄압 술책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④제 6공화국 시기

87년 6. 10 민중항쟁 이후 들어선 제 6공화국 집권 초반의 노태우 정권은 문민통치를 운운하며 각종 선

강제징집은 입영절차를 무시하고 실시되었다

심공세를 취하면서 사면 복권과 수배해제, 가석방 조치를 단행하였고, 84년 5월 개악한 병역법 시행령도 88년 8월 1일 다시 개정하였다.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미만자는 등급에 따라 입영조치한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우리들이 느끼기에 훨씬 부드럽게(?) 개정된 88년 8월 1일의 개정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이는 무엇보다도 국민 대중의 광범한 투쟁에 의해 민족민주운동 진영에 유리하게 전개 되고 있던 당시의 정치적 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87년 6월 항쟁과 여소야대라는 당시 시대적 상황속에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해 있던 노태우 정권은 87년 이후 세차례의 사면복권과 수배해제, 가석방 조치와 더불어 84년 5월 개악한 병역법 시행령을 88년 8월 1일 다시 개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당시 시국관련 대상자 483명중에서 447명이 강제징집 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징집 대상자들의 투쟁과 노태우 정권의 집권 초반 유화정책에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만적 '문민정치'가 그 본색을 드러내는 데는 그리 오랜 기간



이 걸리지 않았다. 92, 93년의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안정적 정권유지를 획책하던 노태우 정권은 한 손에는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폭압적 '공안통치'의 칼날을 드러낸 것이다.

그 구도에 의해 병역법 시행령은 정권의 논리에 따라 또 다시 카멜레온처럼 변신할 수밖에 없었다. 89년 3월에 개정된 시행령이 그것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실형 2년 미만자는 모두 신체 등급에 따라 무조건 징집된다. 이는 노태우 정권의 안정적 집권통치를 위해 민족민주운동 역량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속에서 나온 것이다.

2)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의 유형과 실태

그러나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탄압은 단순히 강제 징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입영후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이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



기 반성 강요 및 프락치 공작, 의문사, 조작사건 등을 들 수 있다.

① 자기반성 강요 및 프락치 공작 : 강제 징집을 통해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해 온 청년학생들을 병역의무를 약용해 장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군사정권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청년학생 양심수들을 출소와 함께 강제 징집하여 4-5년간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이들을 민주운동 세력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의식 개조 및 프락치 공작을 강요하였다. 즉 군부정권은 이른바 '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친구들의 동태를 감시하도록 하는 프락치 공작과, 자신의 신념에 대해 무조건 자아비판 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육체적 고문을 통해 한 사람의 양심과 인간성을 말살하려 하였다.

② 의문사 : 군부정권은 강제징집을 통해 입대한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해 정치보복적인 폭행과 고문을 자행하고, 녹화사업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치사시켜 암장하기도 하였다. 5공 초기의 6명의 의문사와 6공화국하에서의 남현진(외국어대 서양학, 2학년 휴학), 송종호(성대. 서어서문), 이의창(전주 전문대)군등의 의문사가 대표적인 예이다.

③ 조작사건 조작 : 다음으로 군부정권은 강제 징집을 통해 각종 사건을 조작

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반공의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유포시켜 정권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즉 군부정권은 청년학생양심수들의 운동전력을 약용하여 여러 인맥을 하나로 묶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조직사건을 발표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자민통 사건', '애국군인 사건' 뿐만 아니라 서울대 "민족해방 활동가 조직", 청주대 "자주대오", 상지대 "민학련" 등등이 바로 그러한 예들이다.

3.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성격과 의의

93년 2월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을 처음 시작할 때, 정부쪽은 물론이고 민민운동 자체에서도 이 투쟁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문민정부라는 새로운 정치적 지형에서 더이상의 강제 징집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부당징집 철폐투쟁은 그 의의를 가질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부당징집 철폐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마치 문민정부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각기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발로인 것처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모두 첫째,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을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

으며, 둘째, 문민정부하에서의 개혁이 물론 정권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번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보수적인 군부는 예전과 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해 부당한 징집을 계속 시행하고, 불공정한 법 집행을 해 나갔을 것이다. 그럼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성격과 의의를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러한 강제징집을 철폐하고자 하는 투쟁은 계속해서 전개되어 왔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76년 유산정권하에서 병역법이 개악된 이후로 88년까지 3차례에 걸친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시행연도	소급시기	보충역 편입
1차	80년	76. 7. 10 - 79. 12. 31	400여명
2차	84년 3월	80. 5. 17. - 84. 3.	400여명
3차	88년	84. 5. 25. - 88. 7. 30.	447명

[표] 과거 시국관련 보충역 편입 선례

그러나 이러한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은 단순히 시

국관련 수형자들 개인의 군문제 해결이라는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학생들에 대한 강제 징집은 민주세력에 대한 군사정권의 탄압과 정권 안보의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며, 따라서 이의 철폐투쟁은 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 투쟁과 연관선상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부당징집의 근거가 되었던 제도의 철폐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이다.

이러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징집 철폐투쟁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복무하려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이 정권에 의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고립되는 것을 막고 계속해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강제 징집되었을 경우 일명 '녹화사업'이라는 것에 의

강제징집 철폐는 사회민주화의 시작이다

탈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는 것이다. 둘째는 과거 병역의무를 이용한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군부정권의 탄압을 폭로하고, 그 탄압도구인 제도를 철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군사정권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구인 부당징집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청년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의 정당성이 국민적으로 평가되어지고, 군사정권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이 될 수 있다.

셋째는 군이 진정한 민족, 민중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의 개혁을 촉구할 수 있다. 군이 일부 정치군인들에 의해 수십년동안 그 본연의 자세를 저버리고, 오히려 민중에 대한 탄압에 앞장섬으로써 민중들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되고, 병역의무 또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기 보다는 강제징집처럼 느껴져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년학생 양심수들에게 있어서 대 입영은 하나의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의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더욱 강하였다. 따라서 부당징집 철폐투쟁은 군이 병역의 의무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탄압하는 것

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이러한 탄압을 폭로함으로써 군의 개혁을 강제해 내는데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넷째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당한 억압과 탄압에 굴복하고 좌절하느냐,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시국관련 양심수들에 대한 강제 징집은 단순히 육체적, 정신적 보복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꺾고, 스스로 좌절케 함으로써 수동적인 인간을 강요해 왔다. 따라서 부당징집 철폐투쟁은 청년학생들이 이러한 삶의 억압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하여 일각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 온 이상 이제 문민 정부하에서 군대에 입대하여 군 민주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더 낫다'거나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와 같은 시각은 양심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이러한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양심수들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이 단순히 개별적인 군문제 해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내 일부 개혁세력이 군개혁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면서 여전히 청년학생 양심수들을 군을 견제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저의마저 엿보인다. 문민정부하에서 개혁이라면 당연히 민의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계획속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청년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권의 편익주의적인 발상에 다름아니다.

#### 4. 93-94년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투쟁

##### 1) 93-94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시기구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징집 철폐투쟁은 수차례에 걸쳐 벌어왔다. 그때마다 같은 사안으로서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기 다른 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각각 독특한 특징

을 띠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번 93-94년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은 지금까지의 어떤 투쟁들에 비해 사회적 상황도 달랐고, 그 투쟁 경과과정도 독특한 면을 띠고 있다.

우선 이번 투쟁은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른바 '문민정부' 하에서의 투쟁이었다. 과거 두차례의 부당징집 철폐는 모두 군사정권이 정권의 위기에 처하여, 위기 극복 수단으로서 그리고 대국민 무마용으로 일시적으로 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들은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당징집 철폐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이 다소 안정이 되면 다시 병역법을 개악하여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곤 하였다.

또 이러한 이유로 군부정권 위기 하에서의 강제징집 철폐투쟁은 보다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즉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보통 1-2개월 사이에 싸움이 마무리 되었다. 이는 군부정권이 가시적인 개혁조치를 취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그 어떤 사안들보다도 제적생들의 복직이나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부당징집 철폐와 같은 사안들이 우선적으로 선호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때 부당징집 철폐는 군과 관련된 사항으로 군의 내부적 반발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군사정권의 안정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명분하에 내부적 반발 또한 크지 않았다.

그러나 7공화국은 첫째 정권의 위

기상황이 아니었고, 둘째,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군부의 내부적 반감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군과 관련된 개혁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7공화국 초기인 3-5월사이에는 김영삼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의해 내부의 개혁 반발 세력을 제지하며 주도해 나갈 수 있었지만 6월 이후부터는 공공연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정권 창출에 있어서 군부의 힘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또 이후에도 군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군개혁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데 일원인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결부되어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투쟁 또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이를 몇 시기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제 1시기 : 93. 1. --- 7. 6.
- 문제제기 및 투쟁의 상승기
- 제 2시기 : 7. 7. --- 10. 8.
- 고착 및 수세기
- 제 3시기 : 10. --- 10 末.
- 수세적 고착기
- 제 4시기 : 11. --- 11. 22.
- 대치 대립기
- 제 5시기 11. 23. --- 12 中旬.
- 공세적 대립기
- 제 6시기 : 12 末. --- 94. 1. 中旬.
- 공세적 고착기
- 제 7시기 : 1 末. --- 3 初.
- 최종 정리 및 승리

#### 2)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경과과정

##### ① 제 1시기( 93. 1. --- 7. 6.) : 양군모의 사안은 과거청산의 일 내용이다!!

이 시기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김영삼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3당합당 등으로 실추된 대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강력한 개혁정책을 펴나가던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사회 곳곳에서는 과거의 군사정권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화 활동으로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대한 요구가 거세차게 일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통해 제적생들의 복직 및 양심수들에 대한 석방 조치들이 있었고, 사회적 정치적 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수 년동안 군문제로 활동의 제약을 받아오던 시국관련 청년 양심수들이 주체적으로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91년에 있었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2월 1일에 김정훈, 김성중 등 1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어 사회各界의 원로들을 방문, 청년학생들의 병역문제를 호소하여 2월 10에 박형규 목사님 등 원로 12인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시국관련 수형자

#### 김영삼 정부는 군개혁에 한계를 가진다

들에 대한 징집 철폐를 요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3월에는 구속되어 있던 양심수들이 석방되고, 제적생들에 대한 복직 조치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더욱더 조직력을 배가하고, 여론을 통해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의 부당징집을 폭로해 나갔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마침내 4월 15일에는 엄삼탁 병무청장을 만나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자리에서 청장은

" 이 문제가 개혁의 사안임을 인정한다 "고 답변 하였다.

그리고 4월 21일에는 민주당의 정대철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 및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을 원하는 청원'을 접수 시켰다.

"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 103조는 수형자들의 보충역 편입대상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자로 규정하고 있어 과거 시국관련 활동으로 구속되어 2년 미만의 형기를 마친 수형자들은 현역입영 대상이 되어야 하나 현 규정내용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일관성 없이 수



차 개정되는 등 법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수행생활이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희생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제 103조 및 병무청 수행자 처리 기준을 개정하여 주기 바랍니다”

5월에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30여명이 민주당사에서 농성을 시작 하였는데, 이때 병무청장이 직접 농성장으로 전화를 걸어와 5월 7일부터 시작된 “영장연기 조치는 긍정적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관계자로서는 비록 비공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청년학생 양심수의 병역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곧 해결 될 것 같았던 문제는 엄삼택 청장이 구속되면서 일정이 늦춰지고, 이에 양군모에서는 5월 29일 신임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여 전임 청장의 약속을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임 김광석 청장은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청원이 제기한 문제는 과거청산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6월로 접어들면서 병무청에서는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양군모]는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KNCC에서 두번째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6월 8일에는 김광석 병무청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양군모]의 군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러한 내용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복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 입영연기 중이며... 병역처리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6. 25일에는 정모국장과 면담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정모국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여러분의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고, 만족스러울지는 모르나 결과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 확인한 것이었지만 병무청에서는 7. 6일 국방 상임위, 정무 장관실, 청와대와 논의하여 88년 기준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을 작성,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 ② 제 2시기(7. 7. - 10. 8.) : 상황의 고착 및 국방부의 반발

이 시기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반발이 터져 나오고, 김영삼 정부도 개혁에 대한 속도를 늦추며 전반적으로 개혁이 쇠퇴하고 있던 시기이다. 개혁 초반에는 불가항력적인 여론의 힘에 밀려 침묵을 지키며, 상황의 추이를 지켜 보고만 있던 군부를 비롯한 반개혁세력들이 점차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집고 반대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도 개혁의 속도 및 범위에 대하여 국민들의 요구가 더욱더 높아지자, 스스로 개혁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며, 국제 경쟁력 강화등을 개혁 앞에 내세우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 문제도, 병무청이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한 이후 문제 해결이 계속 지연되었고, 마침내 9월 국방부의 완강한 거부와 함께 10월 8일에는 병무청장이 시행령 개정의 불가 입장을 밝히게 된다.

즉 병무청에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보고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이를 제기하고 계속 문제 해결을 지연하다가 마침내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때 ‘양군모’에서는 병무청과 정무장관실 등을 접촉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병무청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정세를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었으며, 국방부의 반동적 입장

에 대해 조직적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기습적인 타격을 받았다. 즉 7월 14일과 15일에 정무장관을 면담하였는데, 그때 까지도 정무장관은 문제 해결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었다.

“시행령 개정은 확실하고, 폭은 복수안이며, 목요일(15일) 국무회의 때 장관관 통해서 보고하고 알아보겠다.”

“학생들 의견 많이 반영했다. 100%는 아니나 어제 이야기 한 정도이다. ...국방부 사정으로 Deley(시노하라 사건으로) 되어 논의가 중단 상태이다. 그러나 올 여름(7-8월)이 가기 전에 해결될 것이다.”

## ④ 제 4시기(11— 11. 22) : 반격 그리고 또 반격

그러나 문제는 8월을 넘어 9월로 넘겨졌고, 급기야는 추석 직전에 병무청에서는 국방부의 완강한 반대로 시행령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병무청장은 갑자기 입장을 돌변하여

“양군모의 사안은 과거청산의 과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등 망발을 늘어 놓고,

마침내 10월 8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국방부에 올렸으나 국방부가 거부하였고, 대신 수형 합산 2년 이상자들에 대해서만 문제 해결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 ③ 제 3시기(10. 9. —10 末) : 좌절이나! 반격이나!

10월 8일 병무청장의 발표로 半年간의 투쟁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서 양군모 회원들은 상반기의 오류를 반성하고 다시 처음부터 투쟁을 시작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다시 재발부되기 시작한 징집 연장을 노태술등 4인이 유사이래 처음으로 병무청에 반납하며,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결의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10월 28일 정기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해 시국 관련 청년학생 군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로써 한 달만에 다시 꺼져가던 투쟁의 불씨를 되살려 내고,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 ⑤ 제 5시기(11. 23 —12. 17) : 승리를 향한 진격

12월 4일 대학로 마로니에서는 1000여명의 학생, 시민들이 모여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징집 철폐를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13일에는 국공립 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시국관련 학생 징집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지금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청원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 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하였다. 이에 [양군모]에서는 60여명이 11월 15일부터 민주당사에서 제 3차 농성에 들어가고, 국회 청원 통과 및 국방부에 대한 반격을 위해 학계, 정치계 및 사회원로들을 대상으로 대정부 촉구 서명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0여개

## 징집영장 반납투쟁으로

### 반격의 교두보 확보

대학의 총장, 학장을 포함하여 교수 1350여분의 서명과 여야국회의원 165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11월 22일 양군모의 청원이 국방상임위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양군모]는 승리를 향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 ⑤ 제 5시기(11. 23 —12. 17) : 승리를 향한 진격

12월 4일 대학로 마로니에서는 1000여명의 학생, 시민들이 모여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징집 철폐를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13일에는 국공립 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시국관련 학생 징집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시국관련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업 및 사회복귀와 과거청산, 그리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현행 시행령을 88년 기준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일에는 국회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청원을 의결하였다.

“.....지난 시기의 민주화를 위한 시국활동으로 비록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2년 이상의 실형 선고자는 아니나 이들은 그동안 수배·구

속·수형등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점을 감안, 과거의 정치적 희생에 대한 치료와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국방부에 대하여 이 청원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또 같은 날 고려대, 서울대 등 8개 대학 총장들이 권영해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를 위해 항거했다 투옥된 학생들에게 과거청산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학업과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88년 마련된 규정을 적용해 1년이상 징역선고자에게는 병역을 면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요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밝혔다.(한겨레 신문 12월 18일자)

**⑥ 제 6시기(12월 末 — 94. 1. 20) : 승리의 고지 점령. 그러나 철저한 경계를.**

국회 청원의 본회의 통과와 대교



협 의장단의 권장관의 면담을 통해서 곧 해결될 것 같던 문제는 다시 농산물 수입개방문제로 휩쓸리고, 권장관이 물러나면서 다시 해결의 시기가 연기 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국방부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계속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18개월 방위 운운하며 [양군모]를 떠보는 듯한 정보를 흘렸다. 이에 [양군모]에서는 상반기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종교인 성직자를 대상으로 문제 해결 촉구 서명을 시작했다. 그리하여 1월 20일에는 2000여 명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원불교등의 성직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양군모]는 학계, 종교계, 정치계, 여성계등을 포함하여 사회 각 단체의 서명을 받았고, 마침내 온 국민의 지지와 함께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17-18일 국방부에서는 정책실무회의와 정책회의를 열어 청년학생 양심수의 병역문제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여 원칙적인 문제 해결 방침을 결정하였다.

“ 특정 기간, 특정 집단의 청원 해결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불가하나, 국회 청원 의결을 존중하여 법령범위내에서 긍정적인 해결 방안 강구 ”

이렇게 하여 청년학생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는

더이상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⑦ 제 7시기( 1 末.—3 初) : 마침내 승리, 다시 민중 속으로.**

2월 4일 설날 며칠 전 민자당측으로부터 당정협의 안을 흘렸는데, 그 내용은 이후 2월 16일 공식 발표 내용과 같은 것이었다.

“ 시국관련 수형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시국관련 수형자 병역처리 기준을 새로 마련 하였던 바 “ 그 처리 기준은 형기합산 2년 이상이 된 수형자, 그리고 1년 이상 형선고자로서 27세 이상인자는 징,소집을 면제해서 제 2국민역에 편입하고, 1년 이상 형선고자 중 26세 이하인자 그리고 1년 미만 형 선고자는 보충역에 편입시켜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하며, 이들이 요구할 때는 29세에 대학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해서 입영을 연기해 주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양심수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대략적인 경과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경과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할 수이다.

먼저 양심수의 부당징집 문제가 과거청산의 과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정확히 과거에 대

한 반성 및 평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회 분위기와 시류의 변화에 편승하여 오락가락 하였다. 그리고 청년학생 양심수들도 문민정부 초반의 개혁정국에 맞추어 상충교섭을 통해 문제를 제기 하고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개혁정국이 점차 수그러들고 보수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병무청장을 비롯하여 정부에서는 양심수들의 부당징집 문제는 과거청산의 과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0월 이후에는 사회각계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양심수들에 대한 징집문제가 군사정권의 유산이자, 과거청산의 일 과제를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반개혁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해온 국방부 관료들과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평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더이상 문제해결을 회피할 수 없었는데, 이는 국방부의 정책회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93 - 94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성과 및 한계**

93 - 94년 부당징집 철폐투쟁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려운 조건속에서 완전히 투쟁을 통해서 승리를 획득해 낸 값있는 투쟁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평가는 각 사업별 보고속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

기서는 개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투쟁의 성과**

이미 앞에서 우리는 93-94년 부당징집 철폐투쟁의 의미로서 크게 두 가지를 제기하였다. 그 중 하나는 부당징집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도의 철폐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정상적 사회복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93-94 강제 징집철폐투쟁을 평가해 보도록 하자.

① 먼저 이번 투쟁을 통해서 성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91년부터 계속된 이번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적용해오던 병역법 시행령 및 예규를 개정시켰다. 89년 3월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6공화국하에서도 여전히 양심수들을 특별히 관리하며, 불공정하게 법 적용을 해 왔다. 그 예가 바로 “입영 후순위 제도”와 “장기대기면제 제도”이다. 6공화국은 병역법 시행령 자체에 시국관련 수형자들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이것이 매년 노골적인 탄압의 근거로 제시되자, 병역법상에서는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예규를 통해 시국관련 양심수들을 별도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부당징집을 은폐하기 위한 나름대로 세련된 방식이었다. 이에 [양군모]

**양군모는 분명한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

에서는 이러한 6공식 부당징집을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법 집행에 불공정성이 있었다는 것을 대담을 받아냈다. 그리하여 “입영 후순위 조정”과 “장기대기면제 제도”를 통해 소집면제된 일반 수형자수가 90년에 108명에 이르던 것이 91년에는 8명, 92년에는 5명으로 줄고, 마침내 94년 개정된 병역법에서는 완전히 철폐되었다.

그리고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록 소집면제 폭은 전체 가운데 30%에 불과하지만, 대상자들 전원이 최소한 보충역으로 모두 편입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물론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대략 400여명이 소집면제되었던 이전 투쟁에 비하면 구제폭이 좁다고 할 수 있다.

② 또 이번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 보다도, 우리의 그간의 민주화 및 통일투쟁의 정당성 및 명분에 대한 대국민적 지지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결국 끝까지 청년학생 양심수의 병역문제 해결에 대해 반대를 했던 국방부마저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청년학생 양심수들의 과

거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국민적 지지는 바로 학계, 정치계, 종교계 및 사회 제반 단체들의 서명속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이는 [양군모]가 우리를 병역 면탈을 하려는 이익집단으로 폄하하고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했던 국방부와의 투쟁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승리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③ 이번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한 성과로서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90년대 이후로 만연하는 우리 내부의 패배주의를 스스로 불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변화된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 및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 및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었다.

④ [양군모]는 이번 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맞추었으며, 몇가지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투쟁을 벌여왔다고 볼 수 있다. 변화된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전술의 개발과 정치여론전은 단순히

명분을 주장하고 알리는 싸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두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분을 시사해 주고 있고, 선례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층사업, 정치여론전, 연대전술,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직운영, 재정사업, 문제에 대한 연구, 정보의 수집등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⑤ 또 이번 투쟁을 통해서 결국 국방부는 결과적으로 군부정권이 청년학생들의 민주화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병역법을 악용하고, 군부내에서의 녹화사업등을 벌여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2.16일 국방부 발표에서 나타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⑥ 또 이번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김영삼정부의 한계를 명확히 체험할 수 있었다. 결국 반개혁 세력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기대야 하는 그의 지지기반의 취약성은 이후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93년 하반기 부터 시작된 그의 한계는 양심수들의 석방이나 노동관계법을 폐지에 대한 태도 및 [양군모]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번 투쟁에 있어서 문제점은 주로 투쟁과정에서 파생되었다기 보다는 문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 및 시대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이번 투쟁에서 가장 큰 오류는 상반기의 7-8월의 상황에 대한 오판에 있다. 당시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일관성 있게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양군모]는 계속해서 병무청과 정무장관실의 전언을 근거로 상황을 낙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결국 예상치 못했던 반격을 맞게 된다.

② 그리고 이러한 상황판단의 근거에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過信이 자리하고 있다. 또 이전의 경험 및 3월 제적생들 복적 투쟁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한데 그 오판의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의 부당징집 철폐투쟁은 군사정권이 위기에 몰리고, 민민세력이 강력한 세력구조하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저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하에서는 정권의 위기는 물론이고 오히려 민민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가 반개혁 세력을 강력히 몰아 부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군부에 압력을 가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혁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던 상반기 초반에는 문제해

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고, 실질적으로 진척되었지만, 개혁이 국제 경쟁력에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하는 7-8월에 이르러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③ 한편 국방부는 청년학생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징집 내지 이들의 민

주화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적인 논리로 일관하였다. 이는 정권이 안정적인 상태속에서의 개혁은 결국 정치적인 입장이 행정적인 논리를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방부는 이러한 정세

의 틈바구니를 잘 이용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을 행정논리로 피해 갔는데, 양군모에서는 이러한 행정적 논리를 완전히 깨뜨리지 못했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승리 했지만, 실질적인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차원에서는 선별처리됨으로써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양군모]

주) 2.16 국방부의 발표 및 구제범위

대 상	편 입	480여명중 비율	비 고
-수형 합산 2년 이상자 -1년 이상 형 선고자 중 만 27세 이상자	제2국민역	30%	-제 2국민역 편입에 대해서는 시행령상에 규정 -보충역에 대해서는 「양군모」회원에 한해서 행정적 조치 -재학생인 경우는 29세까지 입영을 연기하며, 이때 27세 넘으면제 2국민역 편입(의대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단 「양군모」회원에 한함)
-26세 이하자 -27세 이상자 중 형 선고 1년 미만자	보충역	70%	



(2) 투쟁의 한계

기획마련 들

# 양군모 투쟁 총평 좌담회

장소 : 여의도 민주당사 양군모 농성장  
 일시 : 1994년 3월 15일 오후  
 사회 ; 차태근  
 참석 ; 이상원, 배진호, 조우석, 김정훈, 김성중, 이승규

**사회;** 이제 지난 1년간 투쟁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양군모 활동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양군모 투쟁 전반에 대해 평가를 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자기가 처음에 어떻게 이 싸움에 결합하게 되었는지의 계기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진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91년에 강집대책위를 하면서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싸움을 정권이 바뀌고 새정부가 들어서면 끝장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는 자세로

참여했습니다.

**정우;** 개인적으로는 징역을 2년이상 살았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억울했죠. 징역을 나와서 뚜렷한 계기가 없었으며 시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때 진호형, 훈구형 등 91년 강집대책위 사람들이 저에게까지 촉수를 뻗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할까 말까 판단이 안 섰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 때문에 2년,3년을 군에 안 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일단 양군모라는 이름을 딱 띄우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책임감이 앞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단체의 대표를 맡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온 겁니다.

**사회 ;** 성중이 형은 처음에 초창기 멤버로 참여한걸로 아는데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싸움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성중 ;** 91년 6월에 출소했는데 10월쯤에 우연히 배진호 형님에게 제 얘기가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제가 합산 2년을 살았는데, 저같은 경우가 드물었었죠. 진호형이 감각이 있어서 합산 2년이면 법률적으로라도 버텨볼만 하다, 먼저 파열구를 내자, 그리고 나서 새정부가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양군모 싸움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2년 이상 살아 억울하고 분하다는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법률적 대응으로 민변을 통해 타진해 봤지만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잠복을 했습니다. 이후에 91년 강집하던 형들이 10여명 모여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표가 쉬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래 이대로는 갈 수 없다 생각하고 쉽게 승락을 했습니다. 그때가 1월 초 정도 되었습니다.

**정우;**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간거죠.

**성중;** 삼고초려지요. 전 삼초 고려했습니다만.

**사회;** 조우석 동지는 언제 참가를 했죠?

**우석;** 저는 마포 민주당사 농성돌입때 처음 참여했습니다. 저는 5월에 양군모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군에 입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학교 대표였던 김 희준 동지로부터 “양군모라는 조직이 있다. 형도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집단적으로 함께 풀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양군모의 취지와 명분

### 개인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 집단적으로 함께 풀어보자

보다는 과거 양심수가 함께 집단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차원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정정도 잘된다는 기대감에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젠가 “끝났다, 땅 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8월에 영장이 다시 나와서 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긴 하지만 명단을 제출했으니 끝까지 한번 책임 있게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위의 말을 듣고, 11월 중순 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마음은 군 면제를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명단을 제출한 회원이만큼 싸움을 끝까지 책임져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회;** 승규형은 최저학번인데 언제부터 참여하게 되었죠?

**성중;** 11. 20일이죠. 여의도 집회를 계기로 우리지역에서 13명이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성원;** 저는 농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곧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한겨



레 광고를 보고 그 동안 기다리고 있던 보람이 있구나 하고 하던일을 중단하고 곧바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얘기를 들어 보면 참여시기는 다르지만 동기는 서로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억울해서 못가겠다”라는 것도 동기중의 하나인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징역을 나와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것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죠.

**성중;** 전 출소한 뒤 곧바로 학교에 복학해 다니다가 바로 양근모에 결합해서 수배당한 일도 없고, 선배님들 처럼 고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은;** 2년살고 나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했지, 과거의 모든 것은 잊자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운동하던 대의, 이런 것은 인정이 되고 계승되는 것이 있어야 과거운동했던 것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기반해서 새로운 삶을 모색할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외롭고 적막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물론 삶은 변화하는 것이니까 나도 적응을 해볼까 생각을 했지만, 영장이 출소 1주일만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과거 내 삶을 스스로 정리하건 사회적 평가를 받건 그럴 기회가 저에겐 없었다는 것이 벼랑끝에 선 기분이었죠. 그래서 아마 양근모가 없었더라면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진호형은 90년말에 징역에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나와서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오자마자 곧 강제징집철폐투쟁을 벌였었는데.

**진호;** 예, 90년 말에 나왔습니다. 제가 강집철폐 투쟁을 하게 된 동기는 당시에 실형 살고 나오니까 세상 많이 변하고 따라가기 힘들더군요. 그런데 군대까지 갔다오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하는 소박한 문제제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강집철폐 투쟁을 하면서, 저는 아니지만 출소하자마자 영장이 나온 친구들의 경우 각종 조직사건이 군내에서 터져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젠 어떤 모종의 정치적 음모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죠. 심지어

는 출소전에 영장이 나온 사람도 많고 해서 이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장기형을 선고하거나 아니면 2년 미만 실형을 선고 하는 것은 권력재편기에 애국세력을 장기간 사

회와 격리시키려고 하는 음모였던 것입니다. 이는 변형된 형태의 합법적 강제징집이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 상원형도 1년6월형을 받았죠? 출소하고 나서 부당징집 투쟁하기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요?

**상원;** 저는 90년 7월에 출소했습니다. 학교생활하는데 저희 동기들끼리 어떤 사람은 현장으로, 어떤 사람은 사회로 진출하고, 저는 투쟁사업을 했기 때문에 빵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때 나와서 현장으로 갈 생각이었고 군문제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 그러다가 나와서 처음의 계획대로 바로 군대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현장엘 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서는 노동운동했다고 말할만큼 자신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군

양근모가 없었다면 날개없이 추락하는 새 꼴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문제가 걸려있어서 조건이 불안하다는 것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현장생활은 힘있게 하지 못했죠. 게다가 제가 가명을 써야 한다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했어요,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이유들때문에 힘있게 생활하지 못했죠.

**사회;** 송규형은 몇년에 무슨 사건으로 구속 되었습니까?

**성중;** 91년에 표정두 열사 추모비 건립사건으로 수배를 받다가 92년 설날에 들어갔습니다. 갔다와서 저는 큰 고민이 없었고, 양근모에 결합한 것도 장래가 불안해서라기 보다는 선배님 말씀 듣고 결합하긴 했는데 군문제 해결과 사회

복귀하는데서도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될까, 나의 문제이고 여러 사람의 문제를 함께 푸는 과정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치열하게 고민하지는 않았고 인생을 배우는 관점에서 결합하게 된거죠.

**성중;** 86, 87이상은 김세진, 이재호 열사를 보면서 군대는 일단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밑의 후배들은 군대는 갈 수도 있다, 가서도 할일이 많다라는 정서상의 차이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은;** 그러면서도 양근모 일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웃음)

**사회;**우석이 형은 징역에서 나와 군문제를 고민하면서 특히 머리가 빠진건 아닙니까? 농담이고, 나와서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우석;** 그런건 아니고, 저의 경우는 나오자마자 학교사업을 좀 했습니다. 90년 말쯤 학교일을 정리하고 93년 초부터 현장생활을 좀 시작하면서 어려운 점도 감수하고 들어 갔었지만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원이 형도 말했지만 가명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신분상의 예로

점이 많아서, 군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양근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군입대를 하려다가 뒤늦게 11월에

군문제 때문에 현장생활을 임차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합했죠.

**진호;** 91년 강제징집 투쟁을 하면서 2학기가 남았었죠, 졸업을 미루고 강집일을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투쟁을 정리하고 복학을 했는데, 복학을 하고 보니까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도 징역을 갔다 나와서 소원해졌고, 내가 서있을 곳도 마땅치 않았죠. 또 졸업하고 나니까 싸움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동지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혼자 입대할 수도 없고 군대는 안갔으니 취직도 마땅치 않고, 생활상에 어려움이 많았죠. 학원강사, ABS판매도 해보고 트럭운전도 해보고 하는 비참한 생활도 해봤죠.

**상원;** 저도 덧붙이자면, 저희 학번들의 경우에 군문제에 대해서 경직된 사고가 적잖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군에 안가는 것이 애국자



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거죠. 그것은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정권이 군사정권이었고 우리 선배, 동기들이 분신사살하면서까지 한국군의 본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런 것이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있으니까 군문제에 대해서는 생리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나름대로 제 신념을 지키려고 감옥에 갔다와서 현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동기, 선배들은 전부 군에 갔다와서 합법적 신분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군에 가라고 역전된 권유를 하고 하니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어쨌든지 싸워서 군에 안가서 내 자존심을 지켜야겠다는 오기가 작용을 했습니다. 스무아홉살까지 왔던 것도 그것 때문이지요.

**정운:** 실제 어느 때까지는 군에 가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하니까 자존심 이전에 생존의 문제였었죠.

**사외:**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때마다



### 새시대에 맞는 독특한

### 투쟁방식, 사업방식이어야 합니다

군사정권은 우리 문제를 가지고 권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었죠. 그래서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면 곧바로 문제가 풀리곤 했어요. 실제로 88년에는 한달만에 풀렸어요. 이번의 경우 개혁정국이 형성되어 복직, 양심수 석방등의 문제가 풀리면서 우리 문제도 빠른 시일안에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시위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상반기 투쟁을 평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양근모가

언제 결성되었고,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해주시죠.

**정운:** 상·하반기로 나누는 기준은 10월 8일이 지 않습니까? 1~3월이 망아였죠. 내용생산이 만

들어지고, 정당성은 91년 투쟁의 성과물에 기획실장님의 엄청난 연구덕분에 생산되었고, 조직은 망아적 단계의 소규모로 존재했었죠. 투쟁방식,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새시대에 맞게끔 독특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들의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 정도였고, 그래서 엄삼탁 병무청장, 신상우 국방위원장, 청와대 개혁그룹도 만나고 하면서 상층 역량이 약간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조직력이 문제였었는데, 복직, 수배문제가 해결되는 등 분위기가 좋아 주체역량도 곧 강화되고, 개혁정국이라는 호조건 속에서 곧 해결가능성이 엿보여졌죠. 엄삼탁 병무청장이 우리의 원안대로 개정안을 올린바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장이 해임되는 변수가 없었더라도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양근모가 93년이라는 변화된 정세속에서 다양한 문제의식속에서 이것저것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전우:** 91년과 93년의 차이점은, 91년은 노태우 정권의 말기여서 정치적 의미가 강했고, 조직사건과 의문사가 발생하고, 출소직후 또는 직전에 영장이 발부되고 하는 것을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투쟁을 하였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6공당시와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힘든 상황이 도래합니다. 문민정부에 와서 군대에서 녹화사업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

고, 또한 군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정치적 탄압의 측면에서 싸움을 전개하기 힘들었죠. 그러나 6공당시 고통받고 당시 군대를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문민정부하에서 새롭게 평가받고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나이는 먹을대로 먹고 심지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보다는 인도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밖에 없었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양심수들의 군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정권의 안정화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지만, 문민정부하에서도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 문제를 법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난점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정운:** 저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웠어요. 인도적 문제라면 호

소와 청원의 문제인데, 그런 관점이 하반기로 가면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양근모의 주장에 공감하고 지지를 했던건, 인도적으로 접근하면 딱하지만 군에 안가서야 말이 되느냐라는 반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가려면 병역법이 과거에 파행적으로 개악되어 왔던 그런 정치적 접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양근모의 주장에 일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성중:** 상반기는 양근모가 1월초에 탄생하고, 3.6사면이후 86들의 대거동참에 의해 상근체계가 잡히고 나름대로 지방에서도 회원이 조직화되는 시기입니다. 양근모라는 이름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양근모다운 사업이 이루어

### 상반기는 양근모라는

###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의 시기

지는 시기는 10월 8일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반기는 양근모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의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초기에 조직사업을 했는데 우리 회원들 스스로가 '왜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특히 90이하의 후배들은 매우 저급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 주도층이라 할 사람들의 반응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너희들 군대가라, 명분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동정이 가지만 싸움거리가 안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로 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10월 8일 이후 학교의 보수적인 교수님들조차 동의를 하게 만들었고, 언론매체를 통한 여론화 작업 등을 정말 양근모답게 해냈습니다.

**상연:** 상반기의 경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문

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꺼지지 않고 10월 8일까지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적당히 해도 될 것이라는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회원들이 조직화된 자기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움직인 반면에, 10월 8일 이후에는 주체의식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은 환상과 기대만 가지고는 될게 아니

다, 우리가 발로 뛰고 땀이 치고 들어가야 될 것이지, 앉아서 기대하고서는 안된다, 이런 주체의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50일 이상의 농성을 지속시킬 수 있었

고, 그 농성이 바로 이런 노력의 집약이었고, 그 속에서 우리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농성하면서 결의가 높아지는 과정)가 잡히지 않았겠는가하고 생각합니다. 주체의 준비가 낮

**경은:** 앞서 얘기했던 것과 다르진 않지만 환상속에서 끝났다고 보기에는 또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반기에서 조직력이 투쟁을 뒷받침할 수 있었던 시기는 36사면 이후에 동국대에서 석방자 모임을 했는데 그제서야 양근모 회원들이 이만큼 되는구나하고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점에 저희들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여러모로 자료도 조사하고 사례도 찾아보고,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양근모 투쟁의 내용과 조직의 틀이 잡히던 시기이구요, 김성중 동지가 애써 뛰어다니면서 조직을 일구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번째로는 사업방식의 틀이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치고 박

고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은 최대한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독특한 사업방식의 맹아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 한계는 뭘듯 말듯한 분위기에서 '되겠구나'하는 환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체역량은 적당히 하고 나머지는 상층정치역량을 효과적으로만 동원하면 시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된다는 식이었죠. 이견 오류라고 보기보다는 전인미답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빚어진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 150일 농성의 연동력은 주체의식의 큰 변화

**석화:** 작년 5월부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6월 7월에는 구체적으로 범위와 방법까지 암시하면서, 어쨌든 풀리긴 풀리는데 문제는 선별처리와 언제 풀리느냐 하는 것이라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초에 풀릴거라는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8,9월로 넘어갔고 결국 10월 8일 뒤통수를 얻어 맞고 말았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고, 또 당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경은:** 그때는 제가 병무청을 1주에 3번은 갔습니다. 1년을 통틀어서 100번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병무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된다, 1주일만 기다려라". 병무청에서 저희들이 주장했던 원안을 그대로 국방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질서와 체계는 잘 모르지만 주무부서인 병무청에서 국방부에 건의하면 만사능통 아니나라는 것을 저희도 그렇고 병무청에서도 자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병무청과 국방부는 다른 거예요. 병무청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분위기와 정치적 여론이 생기면 그대로 하거든요. 그전에 선례를 보면 주무부서인 병무청만을 상대해서 해결했고, 따라서 저희도 병무청만 잘 설득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는 국방부가 핵심세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랬어도 활동을 하면서 따져야 하는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류였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0월 8일 다 시 싸움을 결의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면 아마도 투쟁을 다시 조직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했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라라고 반성과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시해보자라는 결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는 사무실에서 웃고 지냈던 시기였죠.

### 병무청이 푼다고 아니라 문민정부에 환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중:** 사실 양근모 초기에는 병무청도 접촉을 잘 하지 않았죠. 엄삼탁 병무청장이 총대를 메고 나서서야 접촉한거죠. 청와대나 정책 주도단위가 결정해야 병무청도 풀 것이라고 판단했었죠. 그건 그렇고, 당시에 입수한 정보가 병무청에서 국방부로 올린 안이 청와대, 국회, 정무장관실이 공동으로 만들

었다는 것이었고, 병무청에서도 장담을 하니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병무청이 개정안을 국방부에 올렸을 때 우리가 우리 지지세력을 계속 모아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그때 국방부는 울곡감사니 뭐니 해서 우리 사안을 계속 지연시켰지요. 그래도 병무청이 푼다고 하니까 문민정부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청와대, 국회등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계속 가했다라면 풀렸을

지도 모르는데,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양근모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변화된 시기에 맞는 유효적이고, 세련된 방식을 많이 고민했는데, 거기서

생각을 약간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 여론에 따라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가 되기에는 멀었음을 상반기 투쟁의 경험속에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80년대의 전형적인 투쟁방식이었던 장기농성을 채택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연:** 서울 사람들이야 병무청에 차꾸 들락날락 하면서 돌아가는 분위기를 즉시 즉시 알았지만, 지방에 있는 우리로서는 바다에 간 남을 기다리듯이 간절하게 소식을 기대하면서 몇달씩이나 되풀이 한 것에 대해서는 상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웃음)

**승규;** 전 3월에 양근모에서 처음 연락을 받았는데요, 양근모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하길래 누군가 했습니다. 아니면 뭐 추모사업회 아니면 후원회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뒤에 들으니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그때도 저는 정보수집이나 하고 양심수 중에서 군에 갈 생각이 없는 사람 빼주는 그런 모임인지 이해를 했었죠. 그러다가 지역에서 연대사업부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 감옥에

갔다온 3명의 사람을 만나 "이번에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들 모두 면제라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새로 결합하고 후에 생각해보니

광주지역 같은 경우 잘 연락이 안됐어요. 그래서 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있었죠 뭐.

**성중;**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겠는데, 전화를 해도 통 연락이 없기에 6월인가 7월인가 연세대에서 통일투쟁을 준비하는 집회가 있었을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람들 주욱 불러다가 한명씩 이름 적었어요., 10월 8일 이후에 김부곤,안병일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전남지역을 들쭉서 놓고 올라오니 그때서야 조금씩 움직이더라구요. 전남은 그점에서 좀 비판받아야 합니다.

**우석;** 상반기 평가에 대해 저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양근모에 결합하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겠지만, 일단 어려운

조건에서 이런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이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으며, 주체적 노력이 참으로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된 정세에 맞게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의 요구가 좌절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조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당성을 사회

여론화 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불러 일으킨 것 자체는 양근모 조직이 생활력, 활동력을 가진 조직임을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같은 사람을 하반기에 결합시켜 조금이나마 투쟁에 저의 힘을 쏟을 수 있게 한 것

도 상반기의 성과가 없었으면 안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상반기 싸움의 성과가 전제됐기 때문에 하반기의 큰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예, 이상으로 상반기 투쟁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고 하반기 투쟁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하반기 투쟁은 크게 3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0월 8일 이후 재기하여 11월 22일 국회청원의 청원소위 통과까지 승리를 향한 교도부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과, 승리의 고지를 확보한 12월 17일 청원의 국회본회의 통과와 대교협위원장단의 국방부 장관 면담시점, 그리고 주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이 튀어나오는 1월과 2월의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일도 많고,

양근모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길래 누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평가해볼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0월 8일 이후 국방부로부터 반격을 당한 이후, 재기하는 과정부터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전호;** 하반기 싸움은 어려운 조건속에서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나름대로 한 판 붙어보자는 준비로부터 시작됩니다. 결론론적으로 보면 정치여론전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 교수님,총장,학생들,국회,종교인,신문,잡지-등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은;** 하반기 투쟁은 그야말로 투쟁의 전형을 보여준 겁니다. 뭐냐하면 국방부 부결발표 직후 중앙상근과 91년 팀이 모여서 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활동속에서 지방회원들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상근과 같은 결사적인 모습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조직력을 가지고 계속 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자신이 서질 않았습다. 중앙에 기대고 의존하는 회원들의 상반기의 자세를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회의를 한거죠. 그리고 국방부는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싸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더이상 할게 없다, 정리하자'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1년에 싸웠던 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정리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진맥진 해 있는데 자신들은 최선을 다하

지 못했다고 얘기하니 내심으로는 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아무튼 당시에 오인근 동지가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싶다. 안 그러면 폐인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상근이 뛰었던 것과 같은 투쟁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구요. 아, 내가 너무 개인적인 생각을 했구나, 이 정도의 결의만 있으면 좋다, 하자,해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투쟁은 91년 팀과 93년

상근, 영장연기 투쟁의 영웅 4인이 함께 시작을 했죠. 상반기에는 한번 해보자, 안되면 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한번 목숨을 걸고 싸워보자는 정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소수정예의 결사대가 방대한

조직을 추동하고 각오를 드높였습니다

내심 저마다 절대로 군에 못간다는 각오와 결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정예가 결의를 하고 널털했던 조직을 단시간내에 비상하게 정예화시켜내었습니다. 이때 노태술 선배님의 뿔주의가 주효했는데 양근모의 차분한 스타일과 다르게 사람들을 과격하게 만드는 거였죠. "당신 양근모 할래 말래, 아니면 차라리 기대를 갖지 말고 군에 가라"는 식으로 각성을 촉구했죠. 이러면서 조직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수정예의 결사대가 방대한 조직을 추동하고 각오를 높이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아주 치밀하게 조직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순회하고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면서 긴장되고 치열하게 조직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방식을 얘기하자면 처음에 노태술 선배님이 일만인 서명운동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치열한 고민속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도를 하다가 교수들 서명을 집중적으로 받아보자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서명을 받는데 분위기가 바뀌어 양근모 조직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각 학교로 뛰면서 서명을 쪽쪽 받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상원이 형 혼자서 100여명을 넘게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곳곳에서 영웅적인 사건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 뭔가 판은 벌어지겠다, 500명 전원은 아니지만 150여 회원이 한마음으로 뚫다면 뭔가 판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와는 전혀 다른 면이 보인 것이지. 해서 교수서명을 받고 나서 부터는 승리의 한길

이었습니다. 그 다음 기획실쪽에서 치밀하게 계획을 구사하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미 그때 승리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얼핏 문제가 되었던 상층역량 혹은 정치여론과 이런 것이 이제 교수서명을 계기로 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다 체계화가 된 것이죠. 사업방식을 그렇게 가져 가고,주체들은 결사적으로 싸우고, 이것이 이제 조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런 기조가 정리된 것은 한참 뒤였는데 그때 중앙에서 뛰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조가 통일된 거예요. 물론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국회의원 서명을 받고, 총장을 움직이고,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렸던 것이고, 총장들이 움직이면서부터는 이제 이 게임은 끝났다, 저희는 그렇게 본 것

입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풍향계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돌아선다는 것은 이제 게임이 끝난거죠. 뭐. 그 당시는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상원:**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양근모가 하반기에 집중력을 가졌었는데, 기계를 보면 기계는 어느 하나로는 돌아가지 않고 여러 기어들이 맞물려서 하나의 축을 돌리게 되는데, 여러 사건들이 기가 막히게 잘 맞물리면서 양근모의 사업이라는 축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

런 것이 하반기에 집중됐었죠. 그건 물론 아까 대표가 상반기 하반기 조직을 비교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교수,성직자,국회의원 서명 하나하나가 어찌보면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연관이 되면서 서로서로가 도와주며 양근모 문제의 해결이라는 축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는 바로 국회의 청원을 통해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원이라는 것을 써먹었던 것은 바로 우리 양근모가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방부의 답변이 국회청원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아갔고, 또 판을 마무리 짓는데서도 국회쪽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걸 볼 때 아까 대표는 대교협에서 나섰을 때 우리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한대로 그것이 하나의 기어로서 축을 돌리는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국회청원이라는 것이 통과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청원 통과는 문제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였습니다**

**성중:** 마찬가지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청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민주당쪽을 담당했었는데, 그쪽에서 청원을 안 맡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기 어려운 사안은 국회의원들이 말지 않는다,청원을 했을 때 성사율을 따진다고 하더군요. 어떤 국회의원은 청원 통과율이 몇%이고 어찌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점수에 반영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년이상자들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렵다,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 탄원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청원을 했는데, 결국 청원이 채택되었죠. 이전에도 청원이 있었을텐데 그때는 청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한번 걸어보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우리의 청원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관철시켰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처음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디다. 하반기에 오면서 청원이라는 것을 현실화 시키고, 청원을 통해서 그것을 여야합의로써,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했던 것은 바로 대교협이나 교수님들의 서명, 정치여론전의 승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맞아들어 갔던 것이겠죠.

**성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청원이 가장 큰 힘으로 됐던 건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평가는 그렇게 내려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주체적으로 우리 판 자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수서명의 힘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이 판이 가면서 이제는 교수 1천여명을 받았는데 국회를 움직

이는 것은 우습다, 이런 자신감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주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에 있어서 승리의 원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구:** 저는 하반기에 결합하고, 저희들 남총련이 직간접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했던 것은 10월 이후였는데, 학교논의도 있었고, 하반기에 시작한면서 이제부터 하는 것이다, 이제 한번 해봐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 20일에 올라와 일주일 지내면서 느낀 것은, 이제 우리 싸움은 이

**주체적으로 우리 판 자체를 마련했던 가장 큰힘을 교수서명사업**

긴다. 왜냐하면 국회청원도 통과됐고,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의가 있다, 그 수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다, 교수서명도 다수를 받았고, 사회전반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여론화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녹아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남총련의 회의 속에서도 우리의 요구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쨌든 상반기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뭔가 해보자는 결의가 있었고, 이것이 우리가 승리를 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운동에서도 100여명의 농성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중:** 좋았다고 생각하면 다 좋았던 것 같은데, 개구리 울창이적 생각 못한다고, 10월 8일에 정말 우린 비관적이었습니다. 인근이 형의 한칼(?)이 아니었으면, 10월 8일 이후에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성원:** 10월 8일날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11월 1일날 고대에서 열성자 대회를 하던 날 비로

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위기들이 있었고, 그때 누가 우리를 설득했다면, 지금 이런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전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닌게 아니라 정말 아찔했습니다.

**성중;** 그런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세판단의 근거, 싸움을 할 수 있는 근거, 여지의 문제였는데, 그때 우리가 한 가닥 가지고 있던 기대가 무엇이

었나 하면, 최소한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이나 국방장관이 이미 "결판났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된다, 끝나더라도 여지는 남기면서 '아주 어려운 문제다' 이 정도만

나와도 우리는 해볼 근거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선 끝내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권영해 국방부 장관이 그때 아주 어려운 문제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병무청장은 모두 끝났다 다만, 2년이상자는 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정세판단을 보면, 안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된다고 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해보고 끝내자,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싸움이 안 된다. 이긴다고 생각하면서 싸워야지, 이렇게 지는 싸움인데 끝까지 해보자식의 싸움은 안된다, 그때부터 아주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전술들이 나왔어요. 서명도 그랬고, 12.4 집회도 그렇고, 태술이 형님이 늘 얘기했는데, 우리 대상자 500명이 10명만 데리고 오면 5천명 집회도 가능

하다, 또 주점할때도 우리가 여러번 해 보았듯이 대부분이 밀리지 않으면, 술먹고 끝내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1천만원이 넘었잖아요. 반면 인사치레나 하자던 2차 양근모의 밤은 적자가 났잖아요. 이처럼 보통 대부분 적자인데 마음먹고 하나까 1천만원이 나왔거든요. 우리 주체들 조차도 상상 못할 그런 일을 우리 스스로 해냈다는 것, 이것이 양근모 사람들의 통큰사업이었고, 이것이 우리 싸움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오;** 위기의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10월 8일 출발부터가 위기였는데, 그때 가능성은 정말 바늘구멍만 했습니다. 그 후에 청원이 국회 통과되

고 나서도 국방부의 태도가 대교협 등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그런 상황속에서 가능성들은 참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낙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낙관과 끈기와 노력속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연;** 아무튼 양근모 전체적으로는 가야할 길만 걸어온 것 같고, 빗나가지 않고 해왔던 것 같아요.

**우석;** 저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셨던걸 말한다면, 일단 하반기 싸움에 늦게 결함을 해서, 느꼈던 것은 단결된 모습속에서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양근모였기 때문에 조금의 흐트러짐이나 동요 없이 지금까지 싸움을 전개시킬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제가 하반기에 결합했을 때는 그런 동요라는 문제보다는 해보자

### 정치적 승리의 가장 큰 동력은 양근모 사람들의 통큰 사업

는 의식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아마 저같은 경우에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바로 하반기의 전반적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일단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것 같은데, 첫째는 하반기 싸움자체가 국회청원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리고 우리 싸움자체를 사회여론화 시키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적의식적으로 노력을 견지해 나갔다는 것이고, 둘째, 이런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진짜 창조적이고 참신

한 방식을 개발해내었고, 그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로는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이런 모습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첫번째의 근거로는 국회청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회청원 자체가 제가 봤을때는 통과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이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단 사회여론화 시키고, 문제의식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과 교수님들의 서명작업이 크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교협 총장단들이 움직이는 것이 나름대로 큰 힘으로 다가섰고 이런 서명작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국회에 압력을 가할 수 있었었습니다. 또 양근모의 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도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지지역량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국방부와 병무청에 압력으로 행사하는 것이 있었었습니다. 따로

그외에 국회청원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자체가 우리 싸움을 일로 매진시키는 것으로 조직되었고 추진되었습니다. 두번째 창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것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서명작업등이 있었지만 예전에 우리가 거리선전전 했던 것 있죠. 군복을 준비하고 피켓시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 뭐하는걸까, 미친놈들은 아닐까 느꼈겠지만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

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우리에게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극장가 앞에서 우리를 알리고 길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양근모입니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당징집에 대

해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심수의 군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피켓과 구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참으로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로에서 명동까지 걸어가고 피카디리 앞에서의 촛극,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활동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우리의 내용을 알리고 작업하는 것이 기존의 운동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대집회를 적절하게 창조적으로 잡아내고 정치여론전과 물리력을 결합시키면서 국방부를 적절히 고립시키는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단결된 모습속에서 하나같이 움직였는데, 양근모회원이 노는 사람 하나 없이 함께 움직이면서 한번 결정하면 한다는 양근모식 사업방법, 누구한테 기대기 보다는 우리가 한다

### 추운 겨울 국방부 앞 슨근투쟁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는, 우리농성대오 7-80여명의 힘으로 한다는 우리문제는 우리 힘으로 풀고, 안되면 만다는 적극성을 가지고 임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서명사업이나, 대교협 사업, 양근모의 밤 티켓사업 여타의 다른 사업 속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연:** 빠뜨렸는데, 오전에 국방부 앞 출근투쟁했던 것과 그리고 오후에 거리선전전 했던것인데요, 출고 일어나기 싫는데 한시간 동안 온몸이 시린 추위를 극복하고 그일을 한달정도 했죠. 그리고 오후 종묘공원에서 선전전 했던 것 등은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해냈던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성중:** 그것들 때문에 제가 몸살이 났습니다. 특히 피카디리 앞 촌극 한다고 3일 밤낮을 준비하다가 몸살나서 3일밤낮을 꿈쩍 못하고 들어 누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외:** 다소 산만 하지만 자유스럽게 하반기 투쟁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1년동안 싸움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처지가 다른만큼 인상깊은 것들이라든지 어려웠던 부분들, 싸움을 통해서 얻었던 부분들도 다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표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 보죠.

**정은:** 어려웠던걸 이야기하면, 내가 시간을 뺏긴다, 나는 면제가 되는데 왜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10월 8일이 첫번째 어려움, 양근모 회원들에게 승리가 안되는 싸움을 하자고 하면 제 자신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양근모 회원들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반기 판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반기와 비슷한 판이 벌어지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패배감만 쌓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짐을 줄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 그 판단은 다른 사람에서 나와야만 제가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오인근 조직국장님의 결의가

저의 어려움을 해소했던 그런 것이었고, 그때 김영진 선배님이 상반기부터 쪽 같이 하면서 정이 들었는데 군에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동고동락 하면서 인품이 뛰어난 선

배가 군에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 선배가 군에 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선배가 나와 떨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또 하나의 어려움을 들라면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히 높은 사람들,국회의원을 만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정대철 의원을 처음 만났는데 아, 국회의원을 만난다니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패기 있고 용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대표적으로 만나는건 제가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다, 기자다, 사회단체 대표다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렇게 즐리더라고요. 나중에 우리편이 있으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기택 대표를 만나도 여유

무엇보다 큰 성과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 아닐까요?



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과인거죠. 어려움 속에서 나온 성과, 양근모 500여명 동지들의 성과가 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없는 것인데 양근모 회원들의 힘으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사람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성과입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사람,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으면 학생운동권이 토론하면 결론이 나오지 않는 토론인데, 양근모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하면 열사람 스무사람이 토론하다가도 완전

히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이사람 내일은 이사람이 문제의식을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보강하고 그 다음에는 답을 내오더라구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그게 제일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성중:** 저는 학교에서 사업을 하다 바로 올라와서 선배님들과 차이가 있었고, 양근모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아, 이것이 참 다른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이다. 학생운동 또한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양근모에서 실천했던 것들이 학생운동에서도 할 수 있었을텐데 놓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학교때 연대사업을 하

면서도 한계적이고 웬지 해야되고 할 수 있었던 것을 몰라서 시대상황으로 인해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회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국회, 청와대 등의 사업이, 처음에는 이것들이 우리들의 투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도 했는데 이제는 도리어 다른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학생운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지 않은가, 이것들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제가 사회에서 사회운동을 하는데도 양근모의 투쟁방식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과를 얻었습니다.

**상연:** 저는 3월 2일에 처음으로 양근모와 결합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낙심했던 것은 11월 1일 열성자 대회하면서 10월 8일 우리문제가 이렇게 처리됐다는 것을 듣고 우리문제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을 때입니다. 서울에서 밤차로 내려가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막막함이 지금도 선명히 생각납니다. 민주당 농성에 결합하기 위해 서울로 오면서 부모님이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고 내려오라는 격려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양근모 투쟁의 소감은 양근모가 이루어냈던 기적같은 일들과 창조성이 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나왔던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문민정부하에서 투쟁의 전형을 창조했다고 자찬하는 것이 부끄러운일이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 이

와 같이 문제를 풀 사안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같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마련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어려운 것도 도전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옛날의 방법으로 해보다 안되면 포기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이 배웠고 참가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기뻐던 순간

은, 국회 본회의 청원이 통과 되던 날 2시에 방청석에 들어가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다 우리문제가 마지막에 1분만에 통과되었는데 그때 소리치르면 잡혀가니까 손을 들고 속으로 환호했던 순간

이 있었는데 승전보를 전해받는 심정이 그런 것이 아닌가 느꼈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난 것은 기쁨 이전에 내 개인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큰 재산일 것입니다.

**우석:**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서로가 위해주면서 서로를 북돋워주는 운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모습은 2월 16일 선별처리안을 발표했을 때 우리내부의 동요였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노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저학번들의 동요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를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후배들이 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막막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배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모습속에서 자신은 안됐지만 선배들이 구제되어 자신은 기쁘다는 관점자체가 송고했고, 또한 서명사업을 보면서 이것이 정세에 맞는가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일주일만에 2,000명이 넘는 성직자의 서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보고 십자가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고 스님의 서명을 받기 위해 관악산까지 달려가는 회원들의 헌신적 모습에 정말 회원들의 미래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기대가 생겼습니다. "결정하면 한다"는 양근모식 사업작풍에 대한 회원들의 굳은 투쟁의지가 싸움을 하면서 느낀 저의 깊은 기억의 하나입니다.

**석희:** 싸움을 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민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성중:** 일단은 저도 어려웠던 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1년 2개월을 버티오면서 몸이 힘들고 아침 일찍마다 국방부 투쟁 나가는 것이 고역이었고, ~나중에 몸살 걸리고 그랬을 때는 정말 못해먹겠더라구요 또 한가지는 백수생활 오래하다 보니 부모님께 별 면목도 없고 생활상의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런 것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징역 나와서 저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대선 패배하고 북한강 가서 빠져죽겠다고 동기들에게 허튼소리도 하고, 결국 북한강 가서 빠지는 못하고 그냥 놀다왔는데, 그 다음에 양근모 지면 정말 죽어버리겠다

고 했습니다. 아무튼 패배, 허무주의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아니지만 많이 씻어냈고, 앞으로 살아 나가는 데 있어 옛날의 정서를 많이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한마디로 우리가 모범을 많이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시의 저서를 보면 해계모니투쟁과 진지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양근모가 단순히 청원과 상층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해서는 안되겠고, 정치여론전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전에는 몇 백만이 모여서 물리전으로 엮어버리려는 식이 주된 싸움의 경로였다면, 지금 우리의 싸움의 양태는 우리의 논리, 명분이

전체 대중에게 힘으로 전화되는 정치여론전으로 포위압박해 들어가면서 우리의 해계모니를 장악하는 투쟁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쟁방식을 창출하게된 이유는 첫째, 우리의 명분이 상당히 취약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논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론주도층 및 중간층을 설득하면서 그들을 우리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명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체적 측면으로 우리들 자신이 폭넓고 유연하고 남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졌다는 것, 다양한 정파가 모여 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상,이론,주장에 대해 한발 떨어져서

백수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보니

부모님 별 면목도 없어

겸손하게 성찰해보고 자기의 의견이 전부가 아니라  
라는 것을 정역속에서부터 체득해온 사람들이 결  
정적 힘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양군모 사  
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서로 다양성을 받아들  
이면서 하나로 모아내는 재주와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모범이라고  
전체 운동판에 내밀 수 있는 성과를 내올 수 있었  
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러면서도 문민정  
부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7,8월 시행령 개

정에 대한 국방부 실무관  
료들의 강한 반발에 의해  
무산되었던 것을 보면, 그  
들의 수구적 힘이 한국사  
회 속에서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층의 민  
주계 혹은 개혁파가 그들  
을 확실히 제압하지 못하  
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구적 날개와 개혁적  
날개를 같이 달고 기우뚱거리면서 날아가는 문민  
정부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양태도 수구세력을 제압할 기동성과 끈기, 행동전  
이 필요하고, 개혁파를 끌어낼 수 있는 유연한 전  
술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전오:** 저는 이 싸움에 대한 평가를 지금 당장 하기보다  
는 훗날 우리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평가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사회:** 예, 이제 이것으로 우리 투쟁에 대한 평가는 마치  
기로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개인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우석:**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  
지만 저는 고향이 대전인데 후에 대전에 내려가

서 기반을 갖고 지역운동을 전체운동속에서 대중  
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어떤 부문일지에 대해서  
는 고민하지 않았는데 전문성과 자기의 영역을  
갖고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외적인 전문성  
을 갖추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성중:** 저는 양군모 투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민  
주세력에 대해 빛을 갠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  
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부터 방송작가교육협회  
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문화예술계통에서 사회

에 이바지 할 생각입니  
다. 개인적으로는 그렇  
고, 양군모 동지회,학번  
별 모임도 있는데 흐지부  
지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  
며 만나겠습니다.

**성연:** 저도 마산에 내려  
가서 지역운동을 할까 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  
해서...

**송규:** 저는 방위로 군대갔다와야 하고 해서 2-3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에 차분히 고민하면서 후에 민중에게 복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전오:** 싸움을 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  
기 보다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업을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연:** 단적으로 얘기하면 양군모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  
게 살겠습니다.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양군모 동  
지회가 계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양군모의  
성과를 살려서 개인이 맡은 일을 추진했으면 좋  
겠습니다. 저는 후에 이것을 한번 모았으면 합니  
다. 양군모 동지회가 발전된 형식일 수도 있겠고,

면 훗날 양군모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를 다시 해봤으면

한데 자신이 양군모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각자  
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다시 한번 양군모의 틀  
에서 모아질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  
고 있습니다.

**사회:** 술자리까지 마다하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수 짹짹, 양군모투쟁  
만세 만세 만 만 세!! )

양군모

양군모 투쟁 10주년 기념 모듬





기획마련 셋

양군모 젊은이들에게 주는 글



김근테 선배님



김상복 목사님

편 · 집 · 자 · 주  
양군모 젊은이들의 곁에서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신  
사회의 선배님들이  
양군모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글을 모았습니다.

정대철 국회의원

희망의 깃발을 다시 세우자!

이른바 '문민시대'가 오늘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 1년을 평가하는 데서 군의 개혁을 첫번째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의 지난 1년동안의 고통스럽고 지루했던 활동은 아직도 우리가 지난 군사독재의 유제를 말끔히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고 '개혁의 완성'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과제임을 보여 주었다.

지난 시기 이름도 빛도 없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젊은이들의 희생의 댓가가 '문민'이라는 구호앞에 다시 병영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이라면 역사의 전진을 위해 누가 희생을 무릅쓰려고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양군모'의 활동이 단순히 관련 당사자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지난한 몸짓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군모'라는 생소한 이름의 모임이 만들어졌을 때 사회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재야운동 내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양군모'를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완고한 성역으로 남아있는 군문제와 관련하여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많다. 그 속에서 '양군모'의 문제가 이만큼이라도 진전을 보인 것은 전적으로 젊은 활동가들의 뼈를 깎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양심수 군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난 1년동안의 '양군모'의 활동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페이지를 장식 하리라 믿는다.

오늘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개혁의 완성과 통일의 위대한 민족사의 새장을 열어젖히느냐 아니면 주저 앉고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어깨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 앞에 닥쳐온 역사적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의 거듭남을 통한 새로운 전진이 필요하다.

어렵고 힘든 '군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양군모' 젊은이들이 보여준 용기 그리고 인내같은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직 우리의 이상과 꿈은 버릴 수 없다. 아니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세워내야 할 시기이다. 이것을 위해 모두 함께 나아가자.

1994.3.14

김근테  
새로운 정치조직 건설을 논의하는 전국모임 대표

##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그런대로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해결된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악을 제외하고는 상대적 가치일 때는 서로 주고 서로 받으며 모두 함께 유익하게 사는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종교에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다고 믿지만 신의 세계를 제외한다면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네가지 길이 있습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산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지금까지의 이 세가지 방법은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다 큰 희생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한을 안겨줍니다. 희생이 너무 큼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언제나 모두 다 함께 사는 길을 찾아 살아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의 접근 방법은 누구인가 아니면 다 함께 죽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슴에는 너무나 많은 한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거나 고향을 지르며 끝없이 싸우고 서로 죽이며 살아온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생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 모두가 함께 사는 새로운 길을 찾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불행한 역사의 시대에 태어나 젊음의 귀중한 시간들을 통치자들을 잘못 만나 하염없이 보낸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 분노를 해결할 길이 막연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인간성이 뒤틀리고 빠져버려 버리는 실패자의 모습이 되던가, 아니면 고난을 거쳐 가면서 마치 독수리가 강한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오르듯 승화되어 더 성숙한 아름다운 인간이 되던가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은 시대적 아픔을 안고 살아 왔으나 지난 날의 시련을 승화의 기회로 삼아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삶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날의 상처나 앓고 앓아 뉘두리나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생산해서 두고두고 여러분의 가족과 민족과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 상 복**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할렐루야 교회 담임목사

기독교 21세기운동 공동회장

## 꽃꽂하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의 징집문제 해결(투쟁)과정'을 드디어 백서로 발간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중의 한 사람인 본 의원은 백서 발간 소식이 무척 고무적으로 닿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착잡한 심정에 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양군모]의 활동으로 얻은 결과는 극히 미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활동은 결과가 비록 흡족한 것은 아닐지언정, "나라가 정한 정책일지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좋은 귀감을 남긴 훌륭한 활동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계속 관심을 끊지 않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작년 이맘때 본 의원은 [양군모]관계자 여러분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의 징집 해결요구를 접하고,본의원은 보좌진들과 더불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즉각 그 문제를 유심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곧 [양군모]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머금기에 이르렀고,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구속되지는 않았었지만, 본 의원이 과거 대학재학시절, 이른바 학생운동으로 무기정학을 세차례나 받은 기억이 떠올랐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양군모]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시국관련 청년학생 징소집 면제"청원의 소개 의원으로 정부당국--국방부,병무청등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등을 통해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문제 제기함으로써 [양군모]문제를 부각,문제 해결을 도모하려고 애를 쓴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양군모]여러분들께 드릴 당부 및 바람은 대부분 사회에 진출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꽃꽂이 열심히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본의원은 여러분들께서 활기찬 사회생활을 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94.3.16

**정 대 철**

민주당 상임고문,통일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

## 활동보고와 평가



정치여론전  
 양군모 조직은 이려했다  
 언론사업 활동 경과 및 평가  
 사무국사업 보고서  
 종교인서명 이렇게 이루어졌다  
 국회 사업 보고드립니다  
 교수님과 함께 한 양군모  
 삼각지, 1993년 겨울 새벽  
 병무청 사업보고  
 문민요새 청와대 사업보고

기획부  
 조직부  
 언론반  
 사무국  
 종교인서명대책반  
 국회별동대  
 교수님 사업 별동대  
 국방부 별동대  
 병무청 별동대  
 청와대 별동대

### ■활동평가와 보고.1

### 1. 들어가며

1. ▲▲양군모 투쟁은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고들 했다. 1년 이상 끌어오면서 도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 언제 결실을 맺을 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이 보이는 싸움, 승리하는 싸움, 문민정부라고 하는 속에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양군모 투쟁은 93년 3월의 제적생 복적싸움 및 93년 9.10월의 정치수배해제 싸움과는 그 조건이나 명분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제적생 복적싸움은 -현정부 출범전에 본격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전개되었고-정권초기 새로운 문민이미지를 심기위한 정권담당세력의 의지가 강한 시기에

## 정치여론전

-기 획 실



-청와대등 정권담당세력의 정부부처에 대한 정치력이

쉽게 전달되는 3월내에 학생의 권리인 복적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 교육부를 상대하여
- 정원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정치수배해제싸움은**

- 뒤늦게 7,8월부터 시작하여 일견 싸움의 전도가 매우 험들어 보였으나
- 과거 정치 유산으로서 정치수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일정정도 이루어내고
- 대학 총장단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 여당내 일부세력이나 야당의 제기가 있고
- 역시 청와대등의 정치력이 법무부에 통하는 상황이었기에
- 90%사실상 수배해제라는 내용과 형식에서 다소 미흡하나마 성과를 3개월만에 얻어냈다.

**이에 비해 양군모투쟁은**

- 복적싸움보다는 1달 늦게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 군사통치의 최후보루인 국방부에 대한 투쟁이었고
-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의식', '두려움'을 가지고 즉각적인 지지를 유보했으며
- 양군모 싸움의 내용과 명분에 대한 여론화가 쉽지 않았고
- 청와대등이 군부에 대한 지시력이 몇몇 사안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였기에
- 1년여 동안 지속되었다.

**▲양군모 투쟁이 주위의 우려와 예상에 빚나가는 정치적 승리를 획득한 것에는 배경과 근거가 있다.**

먼저 여타 사회단체나 정치인들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조건과 상황을 창출해 나가려는 의지, 자세, 시각을 확고히 하였다. 이 때문에 객관조건의 악화에 낙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유연적 계기에 의존하지 않았다.

둘째, 문민정부니 하는 정치지형에 조용하려는 창조적인 노력이 있었다. 양군모식 투쟁노선은 '정치여론전'이며

소위 문민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적 테두리 하에서도 '집요하고 논리적인 대응' 또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하였다. 결코 모험적인 투쟁에 앞날을 내맡기거나 조건이나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현실과 주체에 착근하여 싸움을 만들어가는 노력이나 문제의식이 '정치여론전'으로 총화되었다.

셋째,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악화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는 많은 동지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일단 결정나면 조직을 중심으로 반드시 집행하는 조직기풍이 있었다. 또한 센터(Center)를 중심으로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유연하게 조율하는 조직질서를 구축하였다. 지난 시기 학생운동과정에서의 경험을 한껏 발양하여 대오를 강화시켰던 것이다.

-이상의 배경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

**2. ▲▲양군모 투쟁은 모험이 아니라 과학이었다.**

나름대로의 내적동력과 명분 그리고 투쟁노선과 조직노선, 국방부 수구세력에 지지 않으려는 투지 등이 있었다.

**[의의와 명분]**

-역대 군사정권은 민주화에 앞장서온 학생운동세력에 대하여 수배-구속-출소후 징집-녹화사업-의문사 등 일련의 사회격리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탄압하였다. 특히 사회격리(순화)메카니즘의 일환으로 기능한 강제징집 또는 부당징집제도는 병역법 시행령 및 병무청 예규에 법적 근거를 두고 관행처럼 병무행정을 시국사범 탄압에 이용되었다.

-한편지난 시기 정치적인 이유로 수배-구속-수형생활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가 다시 전력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학생들에게 대한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 특히 역대 군사정권과 다른 문민정부임을 현 정부가 표방한다면 과거의 군사통치 잔재 청산과 국민 화합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고통 받아온 이들이 이제라도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양군모 투쟁의 내적 동력은 '인식의 혼란과 삶에 있어서의 패배정서'를 가진 개인들이 지난 시기 학생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획득하고 자신감있는 삶의 의지 회복을 열망하는 530여 회원들**

“ 이에 군사통치 시절 탄압도구의 일환으로 기능하였던 병역법 시행령 및 예규의 개정과 병무행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왔던 관행의 근절.”

“ 시국관련 청년학생수령자의 조속하고도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한 방향으로 병역문제의 전향적 처리.”

“역대정권이 민주화를 외칠때 처리했던 선례와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기준에 따라 학업,취업의 기회보장 차원의 처리 등”을 제시함.

**[투쟁의 동력]**

● 5.6공 시국관련 청년학생 수령자 530여명과 양군모 투쟁에 대해 다양한 수준에서 지지와 공감을 하는 세력, 인사가 양군모 투쟁의 동력이다.

-정권교체와 세계사적 격변을 보면서 '인식의 혼란과 삶에 있어서 패배적 정서'를 가진 개인들이 지난 시기의 학생운동을 했던 삶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제대로 획득하고 삶에 대해 주동적이고 자신감있는 대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렬했다. 즉 지금 내삶에 있어서 여기서 주저앉거나 패배하면 이후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된다는 절박함과 함께 최선을 다해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그리고 각자의 의지를 대오로 묶어서 조직력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계획으로서의 전술등이 있었고 앞서 투쟁해온 동지들의 헌신이 매우 큰 동력이다.

-잠재적 주체가 '양군모 투쟁'내지 '대오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라는 자각을 하기까지 앞서 싸움을 전개해온 동지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고, 93년 상반기 현정부에 대한 기대나 환상이 깨지면서 비로소 우리는 농성대오를 구축하고 93년 하반기의 양군모 역사를 만들었다.

-결코 수구세력에게 지지 않고 과거청산을 우리의 힘으

로 이루겠다는 결의

● 군사통치의 잔재청산과 정치적 희생자의 사회적 치유에 공감하는 세력과 인사들을 양군모 싸움의 주요동력으로 형성하고 그분들의 바람을 그분들의 활동 속에서 구현하도록 하는 것은 양군모 투쟁동력의 외연을 확대강화하고 수구세력을 포위고립시키기 위한 관건적인 사업이다.

-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어떻게 우리사회에 존재하는가를 현재의 시점에서 냉철히 진단하고, 기존의 운동력을 배경으로 한 양군모 싸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1차 동력배치 방침이었음. / 학생운동 내의 여론매체 기타 지지, 각 사회운동단체의 지지와 관심, 사회대책위 구성 시도 기타

-사회의 중간 계층 내지 여론 주도계층의 지지와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지지와 관심을 정치권의 세력관계에 투영시키는 것이 제2차 동력배치 방침이다. / 학계, 종교계,원로 등의 서명과 기자회견을 통한 지지와 관심 /특히 국회등을 통한 정치공세와 여권내의 미묘한 세력관계에 대응

**[투쟁의 대상]**

● 기득권을 수호하고 과거청산에 반대하는 모든 인사와 세력이 잠재적으로 우리 투쟁의 대상이다. 초기에는 새정권 담당세력에게 정치적 부담과 문제제기를 하여 해결하려고 하면서 새정권 담당세력과 병무청 정도를 활동의 주요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부-여권내에서 개혁세력과 수구세력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던 93년 7,8월이후에는 복지부동하면서 개

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수구적 행정관료가 현실적 대상이었다. 30년이상 군부독재에 빌붙어 살면서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몰두한 결과로 행정각부서의 실,국장에 오른 사람들이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집단이다. 특히 검찰공안부나 내무부,경찰청간부및 국방부실국장 및 각군부가 양군모 사안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였다.

그리고 정치적 지형이 변화에 따라 검찰과 경찰및 기타 공안부서는 정부내에서 의사표명을 자제할 때도 있지만 집행책임(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정부내 수구세력의 총본산이자 최후의 보루이므로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국방부가 정치적으로 포위고립시킬 최후,최종 대상자이다.

정부내에 존재하는 기득권층과 그 최후의 보루인 군부가 정치적으로 포위고립시킬 투쟁의 대상이 됨.

● 투쟁의 대상이 어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어떻게 파악해 나아갔는가에 대하여 고민

● 외연상으로 정부로 통칭되나 그 내부에 복잡한 세력관계가 양군모 싸움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를 또한 살펴보아야 함.

[총노선과 정치여론전]

-양군모문제에 대한 최후의 수구세력은 국방관료이다.



이 점은 93년 상반기의 지난한 투쟁과 좌절을 대가로 해서 얻어낸 현실인식이다.

-총공격방향은 국방부를 태두로 한 세력이며 '총노선'은 잘못된 과거청산과 양군모 회원의 조속한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정부가 수용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치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한 그것이 과학적 투쟁의 결과로서 획득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력을 결속,가시화시켜 국방부에 대한 힘의 우위를 고착화시켜야 한다.

-힘의 우위를 어떻게 이루어 내는가는 문민정부의 정치지형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사고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는가에 달려있다. 무릇 모든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듯이, 모든 싸움에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정치적 명분과 역량에서 우위와 승리를 쟁취하느냐의 여부이다.

-따라서 정치여론전을 양군모투쟁의 핵심원칙 내지 노선으로 설정한 것은 하등 새로운 게 아니다. 다만 기존의 사회운동과 군사독재 세력과의 대립이 가두의 물리력을 표상으로 한 정치적 대립이었던 때의 활동 방식과 관성이 어떻게 극복되는가와 보다 현실에 착근하여 미시적이건 큰 흐름이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가가 정치여론전의 실내용을 규정한다.

-합법적 집회와 청원의 국회통과가 정치여론전의 핵심이 아님은 물론이다.

[조직노선]

-양군모 싸움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진대 사회적 문제제기와 실질적 성과를 쟁취하기 위한 활동의 중심동력으로서 양군모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외의 활동이 일정정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도 또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대외의 내부가 강화되면서 객관상황에 대한 대외의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도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올바른 원칙,질서,방향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조직노선이다.

양군모 조직노선은 정치여론전을 수행하기 위해

총노선은 잘못된 과거청산과 양군모 회원의 조속한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정부가 수용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정치적으로 강제하는 것

center의 골격이 유지되는 가운데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변화되는 조직운영의 원칙과 모든 성원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고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체 조직으로 그 성과가 수렴케 하는 활동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조직내부의 책임과 단결을 높이기 위한 조직질서는 어떤 것이었는가와 외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부의 통일수준을 높이는 보고와 정책판단절차가 어떻게 우리 싸움에 기여했는가?도 평가해야 함.

자세한 것은 조직부 보고서에서 참고바람.

[자력갱생의 조직운영과 재정사업-사무국의 역할]

양군모 농성이 130여일 이상 장기화되면서도 정치적 전망과 무관한 이유로 한 대외의 이탈과 이완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투쟁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고 전개한다는 결의 외에도 농성생활과 유지에 기본이 되는 식생활과 사무실 운영 및 재정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조직의 유지,운영의 기본요소로 지적될 만큼 핵심적인 재정이 초기에는 정치활동의 뒷받침 역할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투쟁의 무기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무-재정사업보고서 참조.

[여론화와 언론사업]

정치여론전의 문제의식이 '언론사업'의 독자적 영역 개척으로 발전하였다.

기존의 사회운동권에서의 언론사업 내지는 여론화는

해당단체의 독자집회나 행사에 대해 언론사에서 알아서 취재해감으로써 기사화되거나 중요 사건에 대한 단체의 입장을 기자회견 등을 계기로 알려내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각 단체의 대변인은 기자회견 참석자의 역할 이상은 없었다.

그러나 여론의 수용을 통한 정치적 획득(기반조성)이 중요해지면서 여론의 형성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언론사업(여론화사업)은 계기적이고 수동적인 수준을 탈피해서 일상적이고 능동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언론반을 꾸렸고 또한 대외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여론화에 대한 고민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사업 보고서 참조.

3. 이상의 문제의식, 또는 사고의 틀은 초기에 맹아적 형태로 존재하였다.

맹아적 형태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관성으로부터 거친 도전을 받아왔다.

진리의 검증기준은 실천이듯이 현실의 활동과정을 통해 보다 성숙된 사고의 틀 내지 양군모의 내적 논리로 자리를 잡아갔다.

이하는 활동과정에서 인식의 확장,구체화되고 어떻게 정치적 대응과 성과를 받아안는지를 살펴본다. 고지를 향한 대응과정에서의 풍부한 문제의식이 되도록 사정되지 않고 총화되기를 기대한다.

## II. 활동과정에 대한 개괄평가

-투쟁노선의 구체화

### 1. 93년 상반기 투쟁에 대하여

91년 강제징집 철폐대책위의 활동이 남긴 인적 성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양군모는 3월부터 본격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 상반기 활동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성과를 얻기 위한 활동기, 7월에서 9월 국방부의 공세로 밀리는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반기 활동과정에서 양군모의 활동에 대한 모든 문제의식의 맹아가 짙었고 양군모 조직의 골간과 기본 체계가 형성 강화되었고 정치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일정정도 정부의 공식입장과 조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상반기 활동의 경험과 교훈 및 성과가 하반기 투쟁의 근거,배경이 된다.

#### 1) 3-4월 사이의 활동

(1) 정권출범 초기에 과거청산, 재산공개 등의 사회분위기가 3-4월 조성되었고 5-6월에는 사회운동권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3월 25일 제적생 복적을 위한 정원령 개정조치는 양군모 싸움의 전도를 밝게 해주었다.

(2) 복적 싸움의 경험과 주체의 상황 및 정권초기가 제일 좋은 조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단기 속도전의 모델을 세우고 4월과 5월초에 1차 집중투쟁, 5-6월 초에 2차 집중투쟁을 전개하였다. 단기속도전은 단기간에 집중적 활동과 기동적 대응외에 세가지 사업-여론화, 회원 중심의 조직활동, 다양한 정치역량추동 등을 내용으로 한다.

(3) 단기속도전 모델을 가지고 활동한 결과 5.7명장연기조치, 6.8병무청장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언명, 그리고 7.6시행령 개정안 제안 등의 성과를 얻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양군모 문제의 해결 필요성과 그 타당성을 실천 속에서 검증하였다.

(4) 3-6월 활동 과정에서 병무청과 국방부 실무자와 접촉, 청와대 정무장관실 접촉 등 정부기관의 관계자와 대

화통로를 확보하였다. 두차례의 국회대책활동을 전개하면서 정치권에 문제제기하는 방식과 그 통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정권 내의 개혁 주도세력이라고 표상되는 정무장관실, 문민 국방위원장, 청와대 등의 관심과 협조 및 이 세력의 정치적 지지기반이자 여론 주도계층의 인사들의 관심과 지지를 획득하는 정치여론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실천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5) 그러나 5-6월에 한총련집회(김춘도 순경 사망)와 현총련 파업 등에 대한 사회여론의 비난이 조성되면서 정부내 수구세력의 반발과 개혁에 저해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

이 시기 사회운동권이 체제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된 지형에서 즉, 현정권의 개혁 대 반개혁 대립구도에 따른 정국운영에서 사회운동권은 소외되었다. 수구세력의 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은 여론이나 정권내의 주도세력이었다. 이러한 수구세력의 등장과 사회운동권 일각의 반성은 양군모 싸움이 결실을 맺는데 있어 장애로 대두되었다.

#### 2) 7-9월의 활동(7월 6일 이후 10월 8일 까지)

(1) 양군모 싸움은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정부가 대응적으로 과거청산과 국민화합차원에서 사회적 평가와 판단을 하고 해결해주는 싸움이다.

이러한 초기의 문제의식은 그러나 정부의 조치에 기대하면서 실질의 성과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양군모가 행사해야 한다는 분명한 시각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였다. 반면 7월 6일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이 병무청에 의해 제출된 것은 3-6월 동안 활동하면서 여론이 조성되었고 그 결과로 국회, 정무장관실, 청와대 등이 서로 교감하여 제출한 것이다. 다시말하여 나름대로의 정치적 '세'가 형성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2) 7-9월에는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정치투쟁의 역동성 및 본질에 대한 불철저한 사고 및 몇몇 주도 상급자 중심의 투쟁전개 등의 한계로 인해 계속

## 상반기의 최대의 교훈은 양군모 투쟁의 최종대상은 국방부라는 점과 정치적 기세는 유동적이므로 잘 될때일수록 더욱 거세게 몰아쳐야 한다는 점이다

힘을 쏟지 못했다. 분명히 될 것이라는 당국자의 말을 믿고 기다리면서 조기조치를 촉구하는 대표단 방문으로 2개월을 허비하였다. 그 결과로 양군모에 대한 정치적 지지기세가 꺾이고 약화되었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수구세력은 정부내 보수세력의 득세에 힘입어 병무청과 청와대를 정리시키고 국회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3) 9월초에 뒤늦게 국회와 양군모는 국방부에 항의하고 병무청에 촉구하는 등 안타까워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고 몇몇 대표단 중심으로 촉구방문하는 수준의 정치적 추동은 요식행사로 밖에 기능하지 못했다. 그 결과 "10월8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만 구체하겠다"는 기만적 조치가 발표되었다.

(4) 이시기의 오류와 좌절로, 양군모 싸움의 성격이 결코 행정논리에 의해 좌우될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정치적 대립을 반영한다는 점 병무청 행정관료나 정치인의 언명은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객관화된 제도,법과 공개된 언명 및 여론화 등이 중요하다는 점 정치적 기세는 유동적이며 잘 될때일수록 몰아쳐야 한다는 점, 양군모 싸움의 최종대상은 국방부라는 점 등을 배우게 되었다.

### 2. 연장전 싸움(93. 10.8. - 94. 2월)

#### 1) 수세기(10.8. -- 10. 28)

① 개괄: 국방부 주도의 입장과 영향력이 정부와 정치권을 장악한 결과 병무청장이 입장발표 하였음. 7-8월 경의 점진적 후퇴의 결과가 고착화 되어 우리는 난관에 봉착, 수세기에 내부의 동요와 이탈, 군입대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지지세력이 손을 빼는 양상을 보였다.

② 이에 양군모 사안이 정치 여론상에서 더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질 지도 모르는 위기속에서 대내외적 동요와 이탈을 수습하고 정치 쟁점으로 다시 제기하는 것이 이시기 활동 목표.

③ 대내외적으로 투쟁전선을 가시화 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방침은 10. 18일 부터 기독교 회관 농성투쟁과 10. 25일 영장반납투쟁이다. 정치역량을 동원하기 위해서 1만인 서명운동과 사회 대책위 구성을 통해 청와대를 추동하여 국방부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자는 노선이 제기 되었다.

④ 핵심방침과 몇가지 사업을 통해 영장의 일괄연기와 상근농성 인원의 확대(20명)를 통한 Center의 강화 구축 그리고 대내외적 투쟁전선의 가시화를 이루어냄.

⑤ 영장연기 과정에서 정무장관실의 정치력이 외형상 약화되었고, 청와대의 역할이 영장연기까지는 가능하며 중재역할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또한 청와대 보다는 민주계 정치인과 국회를 통한 국방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보다 유의미함을 확인함.

#### 2) 대처, 대립시기(10.28 - 11. 22)

① 개괄: 청와대의 개입을 이끌어내 영장연기가 이루어지면서 NCC 농성팀을 중심으로 내부 대오가 추스려졌고, 구체적인 전망과 경로를 고민하면서 싸움을 전개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방부나 병무청이 외형상 완강히 버티고 있으나 상반기에 양군모를 지원했던 민주계나 야당, 사회운동 세력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새롭게 가시적 역량으로 조직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② 공세적 국면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치역량의 조직화와 여론화를 위하여 전국의 교수 2000인 탄원서 작업

에 착수하였고, 국회의원 서명과 함께 국회에 4월에 제출한 청원이 여야합의로 통과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제시되었다. 조직 방침으로는 국회 상임위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농성장을 민주당으로 옮기고 조직역량을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제시됨.

③ 이 시기에 정치여론전의 기본 전제는 '모두가 주체로서 확고히 결의 결사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농성대오의 자세'이며 정치권의 반응에 따라 투쟁의 방도와 수위를 맞추기 보다는 주체역량을 강화시키는 관점하에서의 전술구사가 원칙임을 확인하였다.

④ 실제활동으로 1300여명의 교수서명과 다양한 여론화, 50여명 이상의 민주당 농성대오 유지등의 성과를 얻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농성과 민주계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주요대학 총장의 지원과 광주지역 대학생회의 촉구등에 힘입어 국회청원 심사소위에서 여야합의로 청원이 인용되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양군모는 국방부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됨.

⑤ 그러나 사회대책위(젊은이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임)의 결성시도는 기존의 운동력을 기반으로 하기 위한 시도로서 제기 되었으나, 총론적 문제 의식 수준을 넘어 서지 못하고 추진하는 이들의 경험도 미숙하여 성과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서명운동과 다양한 접촉의 성과로 각각의 역량의 조직화와 행동으로 추동하는 것이 고민되었다.

⑥ 청원소위를 통과시키면서 '국회 내지 정치권에 대한 추동 사업'의 경험을 생생하게 얻게됨.(구체적 절차도 중요) 결코 개별인사의 이익을 위한 비공개 로비가 아니라

정치적 기반을 근거로 정치인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정치적 사안을 처리하는 정치활동의 경험이다.

3) 정치적 우위에 기반한 공세기(11.22 이후--12.17.)

① 대치 대립 국면이 돌파되면서 양군모 농성 대오의 사기와 활동력이 강화되었고, 그동안 관망하던 학생운동과 총장님 및 세력을 적극적으로 인입하여 대국방부 정치전선에 배치할 것이 요구되었다. 상승 발전하는 국면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방부에 대한 포위고립을 가시화시켜 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고민됨.

② 국회의원 136명 서명과 청원소위에서의 여야합의에 따른 청원인용후 국회에 대한 방침은 청원의 상임위 본회의의 통과를 앞당김으로써 국방부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를 객관화 시키는 것이고, 이와 함께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과 민주당을 통한 국방부 공세의 지속이다. 한편 추상적 사회역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교수서명의 기자회견과 총장단 협의회 추동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진공적으로 조직대오를 가동하여 활동하였다.

③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친 양군모의 밤행사(11.27)와 1000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12.4 대학로집회, 그리고 1300여 교수서명 기자회견과 광고(11.30)와 12.3 국공립 총학장 협의회에서의 교육부에 대한 건의 등의 성과를 냈다. 이로써 양군모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일정정도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더이상 양군모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느냐는 명분논쟁을 종식시켰다. 이후 남은 것은 언제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해결하느냐이다.

④ 양군모 싸움의 의의와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후 국회 역량과 대교협등 학계의 지지 및 양군모 농성대오의 물리력 등 세가지 역량을 기본으로 국방부에 대한 공세를 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정부내의 논의와 결정을 앞당기고 정치적 포위를 가시화시키기 위하여, 양군모 사안의 처리에 관계되는 모든 인사와 단체, 정부 부처에 대한 전면적 접근과 추동을 하기로 함.



양군모 자료집 60

인개정국을 투시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최종공세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지역전투에서 획득한 정보와 그에 대한 분석 및 기동적 대응 덕분이다

소위 전면전 내지 총공세로 명명한 이 방침은 "국방부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기반한 공세국면"을 "국방부를 다각적으로 원거리에서부터 근거리로 포위고립시키는 국면"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전면전 방침은 상반기의 성과로 정부내 정무장관실이 양군모 사안을 적극 지지하며 총리실의 입장을 견인하고 국방부와 대립할 때 대교협과 국회의 여론이 존재하므로 청와대가 정치적 결단을 하고 결국 국방부가 포위고립될 것이라는 정세인식에 근거하여 제출된 것이다.

⑤ 전면전을 수행하기 위해 농성대오의 다수가 별도대 형식으로 편제되어, 국회팀, 청와대 팀, 종합청사팀, 대교협팀, 국방부팀, 원로 및 사회대책위 팀, 언론반등의 이름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국방부에 대해서 직접 조기 결단을 강제하기 위한 국방부 아침 전투를 12월6일부터 시작하여 한달 가량 지속되었다.

⑥ 청원 소위 통과 이후 청원을 다루는 상임위가 11.29 쌀문제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지연되었고, 청원소위 통과 직후 국방부 인사국장은 상임위 통과후 만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기류였으나 상임위의 지연에 따라 양군모와의 대화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상임위의 일정이 조기에 잡힐 수 있도록 활동하였고 그 결과 12.9일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상임위 통과와 함께 언론사의 협조로 그 내용이 기사화 됨. 한편, 대학교육협의회 의장단 8인 총장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한 17일 아침에 국방부 장관및 실무진들과 조찬회동을 통해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 교착국면(12월 중순 -- 1월 중순)

① 국회 청원이 12월 9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정부 부

처는 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의 권고문에 대하여 청와대 교문수석실은 그저 일반 탄원이 정부에 전달되는 정도로 폄하하였다.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는 "총공세 내지 전면전"의 문제 의식(대교협, 국회, 양군모등이 정치 전선에 굳건히 서면 정부내의 이반과 동요가 일어나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그 결과 국방부는 내외로부터 고립될 것이라는)에 허점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따라서 도대체 국방부를 청와대가 정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 되었다.

② 소위 이러한 안개정국을 투시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최종 공세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지역 전투에서 획득한 정보와 그에 대한 분석및 기동적 대응 덕분이다. 똑같은 국회 청원에 대하여 국방부는 "법령 개폐는 반대하나 어떤 식으로든 묘안을 찾아 해결해 보자"는 반응을 보였고, 병무청은 "국회청원 인용 내용대로 처리되지 않겠느냐"며 영장을 최초로 국회청원에 대한 처리가 일단락될 때까지 영장일괄 연기조치를 1년만에 최초로 취하였다. 이시기에 대교협이나 국회쪽을 통해 국방부가 정서상 몇가지 어려움 내지 외형상의 해결형태를 고민하고 있으니 이를 고려해 달라는 제의를 해왔다. 즉 국방부는 양군모와의 역관계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처리와 정부의 대응적 결단이라는 모양새에 신경을 쓰는 듯 했다.

한편 쌀문제로 정국이 소용돌이치면서 상임위가 연기되고 양군모의 사안에 대한 여론화가 어려워지자 안개같은 정세가 형성되었다. 즉 결실국면으로의 급격한 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치적 우위에 기반한 완만한 공세국면'이 지속되고 있었다.

양군모 자료집 61

③ 정치적 공세의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11월--12.20) 기존의 총공세 문제 의식(특히 청와대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이 수정되고 대교협이나 국회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보게 되었다. 이때 양군모의 정치적 핵심 보조역량으로서의 국회, 대교협이라는 시각을 탈피하고 양군모와 국방부 사이에(전진배치) 대교협이나 국회역량이 개입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과 명분을 마련해 줌으로써 결실전으로 돌입하려는 전술--소위 유연전술--이 제기되었다.

유연전술의 문제 의식은 정치여론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술 구사에 관한 것으로 정치적 대응을 기본으로 물리적 대응을 결합 시킨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그 결과 국방부 아침전투등 각종 집회의 일시 유예나 개최는 정치적 역량(국회, 대교협 명분 강화)의 강화 관점에서 판단 결정하였고, 특히 서명 교수등 광범위한 학계 사회단체 인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상시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갖게하는 사업을 고민 집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서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현황을 알리는 편지보내기 및 몇몇 인사에 대한 상시적 접촉방침이 제기되고 집행되었다.

④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농성이 장기화 되면서 농성대 오 유지가 매우 중요하게 나섰다.

특히 연말 연시의 분위기나 두달이상의 농성 장기화로 인한 체력 약화, 규율 약화등 생활상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농성단의 생존문제인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농성 재정 해결을 위하여 사무국 중심으로 하여 12월 하순에는 일주일에 두세차례 장사하는 날로 정하고 농성대오가 함께 뛰어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였고, 94년



양군모 자료집

들어서는 재정 사업단을 발족하여 규모 있고, 전문적인 판매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성과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⑤ 한편 93년 12월 31일 청와대 접촉을 통해 청와대가 군부에 대해 갖는 애로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개혁 사정의 대표적인 희생양인 군부는 지난해 7월 전쟁 기념관을 국립 박물관으로 전용하는데 대하여 친YS나 하나회 가릴 것 없이 반대한 바 있고, 이 시점을 계기로 민주계 소장세력이 정치적 한계를 보인 적이 있었다고 한다. 7월 초에 병무청장이 양군모 문제를 시행령 개정으로 분명히 풀겠다고 했으나 수구세력의 입김 강화 이후 군의 사기저하라는 명분용으로 이용될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매우 소심해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대한 정치공세가 국방부 저항으로 결실을 맺지 못함으로써 공세적 교착국면이 지속되었고, 결실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리메이커가 필요하였다.

⑥ 국방부와 양군모 사이의 대립을 정리하고 결실로 맺기 위한 정리 메이커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1월초에는 대교협 8인총장이 12/17일 권영해장관과 만난바 있기에 청와대 수석대신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수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대교협의 활동력을 비상이 강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매우 미미했고 교착국면을 돌파하여 대교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대교협의 의장단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을 만나서 나름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한 점은 이후 민주계의 추동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아무튼 대교협은 청원을 완전히 관철시킬 주체가 되지를 못하였고, 국방부와 양군모 사이에서 중재 조율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역할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⑦ 교착국면이 장기화 됨에 따라 정치적 기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보다 큰 정치적 힘을 모으기 위하여 1월에는 종교계 서명과 각 대학 학생회의 촉구서한 발송작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천여 종교인 서명 및 기독교, 불교계의 기자회견, 정부 민자당에 대한 촉구 청원등이 있었고 전국 70여개 대학의 신임 총학생 회장단이 청와

## 2.16 국방부 발표의 내용은 과거청산과 정상적 사회복귀 및 국회청원의 취지를 정치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와 국방부로 촉구서한을 발송하였다. 양군모 문제의 해결의 지연은 또한 93년 말 서석재씨등 사면복권 사례와 함께 현 정부의 과거청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사례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 5) 결실국면(1월 하순 --2월)

① 국회의 권고문이 12월 27일 발송되어 청와대를 경유하여 12월 31일 국방부에 도착하였고, 1월 4일 병무청에 청원채택 이송이 있었다. 이시기까지 국방부나 병무청은 묘안을 찾아보자는 입장이었으나 병무청과 국방부의 두 차례 정책실무 회의(1/7-8일)이후 18개월 방위안 또는 선별처리안등이 실무자를 통해 흘러 나왔다. 이에 양군모는 이러한 기만적인 방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고 병무청 정모국장은 결코 선별처리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하였다.

한편 국방부 인사국장은 신사협정 운운하며 1월18일 정책회의 전까지 국방부 앞 아침 전투를 중단한다면 나름의 좋은 결실을 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② 그러나 1월 18일 국방부 정책회의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소집면제 불가와 18개월 방위안을 결정하였다. 이에 그 결정이 장관의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닌 것을 파악하고 대교협과 국회(특히 민자당)를 추동하여 장관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방침과 18개월 방위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운다는 조직적 결의를 내었다.

③ 국방부는 정책회의의 결과를 국회등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양군모는 병무청에 대한 응징 시위와 민자당 추동을 통해 국방부 의도를 분쇄하고자 하였다. 한편 민자당(특히 민주계)은 국회 청원 통과 전후의 활동과정에서 구체적인 관계형성 및 대교협과 종교

계의 활동과 관심, 그리고 사회운동권의 양군모에 대한 관심등 때문에 국방부의 일방적 처리기도에 반대하였다. 그 결과 1월 27일 국방부의 발표기도는 무산되었다.

④ 민주계는 양군모 사안의 제기 이후 일년 여간 계속 개입하거나 관심을 가져왔으며, 국회청원이 통과되고 각계의 해결 촉구가 있는 마당에 어정쩡한 처리를 묵과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일차적으로 갖게 된다. 이때문에 청와대를 대신하여 국방부에 조직적으로 계동을 걸었다. 이후 민자당 정책 조정실과 국방부는 세차례의 당정 실무 논의를 가졌고,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50%이상 면제 등 취업,학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처리 기준이 국방부에 강력히 전달되었다.

⑤ 한편 양군모는 민자당 쪽에 군의 입장을 고려하여 입대후 조기 전역이나 전원 6개월 복무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병무청도 국방부에 제안한 적이 있으나 국방부는 양군모 사안을 각 군에까지 파급시켜 처리할 경우 나서는 지휘부담을 꺼려해 완강히 거절하였다.

⑥ 그리고 결국 설 전에 만 27세 이상 1년 이상 선고자라는 기준으로 시행령개정을 하며 더불어 50%이상 구제됨을 국회에 양군모측에 미리 밝히고, 설 직후 요식적 대화를 거쳐 2월 16일 그 입장을 발표하였다.

⑦ 국방부의 발표 내용은 과거청산과 정상적 사회복귀, 국민화합의 취지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2국민역 편입 및 행정적 특단을 통한 보충역 편입 인데 국회청원의 취지를 정치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구제율과(30%) 청와대의 결재시 제시한 구제율(64%)이 차이가 있어 끝까지 기만적인 숫자조작을 한 수 구적 관료에 대한 규탄과 책임있는 시정을 요구하는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양군모 자료집



### III. 양군모 투쟁의 몇가지 교훈

#### 1.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의 정치활동의 방식에 대하여

##### (1)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 조성된 정치지형

선거에서 43%의 지지를 얻고 국민적 동의하에 정통성이 인정되는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 정부내의 개혁그룹은 정권의 절차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모든 정치세력에게 정치활동의 규칙-합법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존중-을 제시하였다. 각 정치세력 간에 제시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공존과 경쟁을 위한 정치질서가 일단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현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94년3월의 정치관계법 개정도 그 일단)

##### (2) 현정부가 민주개혁을 표방하면서 창출한 정치공간에서 각 정치세력의 정치력의 근거

정치력이란 단순한 수적 우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의사와 결의를 가진 집단의 크기외에 그 집단의 정책에 대한 다수 대중의 신뢰와 정치적 대변세력이라는 공감대를 확보해야 어떤 정치세력이든 비로소 정치력을 확보, 행사할 수 있다.

유신시대나 5공시절 처럼 소위 '정치외교의 자유'마저 억압당하고 정권담당세력 이외의 세력은 정치의 들러리가 되거나 아예 배제당하는 정치질서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소수의 집단이라도 감히 정권을 반대! 비판! 타도! 한다는 공개의사를 표출할 경우에 대단한 정치적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소수의 의사표현이 정권이 강요하는 정치질서에는 불법이지만 독재의 정치질서를 거부하는 대다수의 국민적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또다른 의미의 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론주도계층의 역할이 인정되고 언론이 활성화되면서 국회나 시민운동, 각 사회단체활동 등 정치적 의사를 매개하는 사회구조가 형성, 강화되면서

각 정치세력은 단순히 정치적 발언을 감히 한다고 해서 정치력을 확보할 수는 없게 되었다. 오히려 각 정치세력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구체적 내용인 대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가의 여부 및 정책실현을 위한 대국민 설득능력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 (3) 소위 문민정부에서의 시대적 과제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이다.

이는 87년 6월항쟁이후 하나의 흐름으로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정책방향이자 실제적인 결과획득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정치공간이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열린공간을 활용하고 그 '열린공간 = 소위 개혁의 한계'에 대한 국민일반으로부터의 극복의지가 발현되기까지는, 각 정치세력은 열린공간의 질서와 내용에 조응해야 한다. 즉, 소위 문민정부가 강제해내는 정치질서를 준수하는 합법적 정치활동방식을 통해 양군모 문제를 과거청산과 국민화합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창조적인 방식과 구체적 정책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명분이 매우 강하다면 (즉, 이미 명분에 대한 국민다수의 공감대가 확보된 사안이라면) 활동방식이 현 정부 하에서는 다소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정치력의 유지는 가능하나 확대강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4) 활동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

우선 정치적 주장의 정당성 - 즉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이 즉각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일수록 정권의 정책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다수의 공감을 확보하는 과정이자 명분의 취약함을 보강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에 의한 여론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명분과 여론화에 기반하여 정치적 성과를 수렴할 정치조직 주체의 활동은 전반적인 계획 하에 근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 정치적 사안에 대한 활동을 통해 무언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 2. 문제제기식 싸움과 실질적 결과를 획득하는 싸움의 차이

① 양군모 싸움을 바라보면서 초기에 그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양군모 싸움이 역대독재정권이 부당정집제도를 탄압 도구로 이용해왔으며 이것을 포괄적인 군의 민주화나 현정부의 한계를 폭로하는 매개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은 양군모 투쟁의 정당성은 인정하나 현정부가 과거와 다를바 없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의 연장선으로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은 싸우더라도 '문제제기'나 '폭로수준'에서 정치공세를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투쟁주체나 지지자가 의식화 조직화되는 것을 성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양군모 사안에 대한 총체적 인식 (현재의 정치지형에 대한 평가등)이 결여된 것으로 일단 해보다 안되면 말고 안되는 이유가 과거와 같은 현 정권의 본질 때문이라는 자기중심의 사고의 연장이다.

\*선협적 판단이나 관성적 사고는 자칫 무책임한 태도로 이어지며, 그 누구에게도 삶의 자신감을 주지 못했다.

② 정치적 사안에 대한 활동을 통해 무언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제제기가 정치적 역관계의 우위라는 정치지형의 조성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역관계의 우위 자체의 변화나 행정적 조치라는 결과로 나타나도록 집요한 활동이 끝까지 전개되어야 한다.

③ 단순한 문제제기기의 싸움은 지금 순간 다수의 공감

을 얻고 있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축적되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전개한다. 그러나 실질 결과를 얻기 위한 싸움은 지금 다수의 공감을 얻어내야만 한다. 지금 다수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장(문제제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한다.

즉 아직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낮거나 오해가 있는 사안에 대해 알려내고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또는 일방적 주장이 아닌 사회적으로 설득 가능한 내용으로 요구수준을 조정해서 제기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문제제기나 주장이 정치적 역관계의 우위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구나 주장을 구체적인 대안수준으로 제시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논리나 주장에 대한 대응(역공세에 대한 정치적 대응)논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정치적 대립과정에서 반대주장의 논리와 여론과급력을 제압하지 못하면 당장은 문제해결이 지연되는 후과를 남기거나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좌절할 수 있다.

반대주장을 시의적절하게 반박하기 위한 대안의 제시와 이를 통한 정치적 입장의 정당성확보는 결국 정치적 역관계의 우위라는 정치지형으로 수렴된다.

⑤ 93년7-9월 양군모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공감을 일정정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역관계는 유동적이어서 외부 변수에 의해 역관계의 역전이 일어나고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을 평가한 후 93년 말부터 1월까지 2개월 간 정치적 기세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과 정부의 의사결정체계의 논의를 다그치고 결론을 맺게하기 위한 별도대 활동을 집요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별도대 활동은 정치적 우위의 역관계가 최종결실(시행령개정이나 행정처분이라는)결과를 도출하기 까지 정부와 국회, 사회단체와 지지인사등 다양한 부문의 논의와 활동을 매개를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행정부의 행정절차나 처리는 행정관료의 자의에 따라 쉽게 한 두달 지연될 수도 있다. 지연의 과정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이 기다리다 보면 내부의 동요와 부담이 가중되며, 행정관료의 입장에서는 상부의 문책이나 지시가 없는 한 복지부동하며 버티도 아쉬울게 없는 것이었다. 이점을 극복해야 한다.

③문제제기만 하는 싸움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주장라고 공세를 취하는 싸움이며 이전의 많은 싸움이 그러했다. 실질적 결과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은 사회적 문제제기수준을 뛰어넘어 현실에 조성된 정치지형속에서 구체적이고 정교한 대응, 집요한 대응을 해야 할 싸움이다. 조건이나 우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체의 주동적 활동을 기본으로 정치적 사안의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 내기위한 활동은 각 주체의 대응능력과 치밀함, 집요함이 생명이다.

**3. 정보가 힘이고 구체적 논리대응능력이 필요하며 정보분석 이후 대응논리의 개발과 기동적 대응이 중요하다.**



① 왜 정보가 힘인가?

\* 93년 7월 정무장관실과 병무청을 계속 접촉하면서 분명히 시행령개정을 통한 조치가 있을 것이며 이미 정책적 결단이 있었으니 국방부실무자들의 반발은 별거 아니라는 정보를 들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반대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12월말에야 알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조성되고 정무장관실은 8,9월부터 수구세력과의 대립 행동을 자제하고 있었다. 결국 역관계의 역전이 일어났다. 정보선이 한쪽에 편중됨으로 인한 잘못된 정보는 객관적 현실을 옳게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을 그르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 93년 12월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청원이 인용되었으나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최종 정치적 부담을 청와대가 받아안고 국방부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상 책임을 회피하고 일면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태도가 해결불가라는 절대장벽인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데는 역시 정보의 힘이 중요했다. 똑같은 청원인용인데도 병무청은 일괄영장연기조처와 함께 국회의 권고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던 점이나 국방부가 최초로 국회의 권고 때문에 어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점은 다양한 정부내의 반응 즉 다양한 정보에 의해 드러났다. 이후 1월초 몇몇 정보를 통해 모인사가 문민정부 과거청산 의지에 대해 비판했다는 사실이나 청와대측이 군과의 관계에서 일면부담때문에 공식적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지만 일정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등이 확인 되었다. 만약 12월에 포괄적인 정보의 총화가 없었다면 교착국면에서 내부대오는 동요하면서 좌경적 전술구사로 농성대오유지를 가로막아 전체싸움이 그르쳤을지도 모른다.

\* 94년 1월중순경 국방부가 정책회의를 거쳐 [기만적인 18개월방위안]을 제출을 했을 때, 우리는 정치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으며 정치적 역량으로 대교협 총장단이 그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봤다. 그러나 대교협의 역할은 해결하느냐 마느냐의 커다란 골격외에 구체적 방식과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다양한 사실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정보는 양군모 활동의 무기이다**

오히려 큰 기대가 없었던 민자당 쪽이 국방부의 도발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즉 국방부가 기만적인 안을 마련 발표하려고 기도하였으나 민자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민자당쪽에 다시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새로운 안의 골격은 국방위원장의 의견대로 만들어졌다. 민주계가 집단적으로 양군모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국방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던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은 2월중순이었다.

구체적인 처리지침의 형성과정에서 양군모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은 막연히 청와대가 아니라 집권세력내에 민주계라는 점 특히 국방부와 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힘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경우 갖게 되는 국방위원장의 부담등을 고려해볼때 국방위원장이 가장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의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한 것은 정보분석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② 정보의 수집과 분석

무릇 모든 활동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단편적 사실들이 모두 정보이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냐는 일정기간의 활동과정에서 평가된다. 단순히 국방부나 병무청, 국회등의 내부 공식일정외에도 정부의 태도나 반대주장속에 인용되는 행정논리 그리고 주체의 대응에 따른 상대방 다양한 사실등이 정보이다

다양한 사실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 즉 양군모 대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밝혀주는 정보가 만들어 진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는 양군모 활동의 무기이다.

다양한 사실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을 위해 모든 활동주체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이 보고를 회의보고속에서 매일토론 검토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1주일단위의 사업제안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12월초 양군모 투쟁에 대한 명분 논쟁이 끝났다는 평가속에 국방부에 대한 정치적 포위, 고립을 가시화시키고 결실을 조기에 맺도록 하기위하여 별도대를 구성, 활동하였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 병무청, 국회, 대교협, 사회단체, 언론반동의 각 별도대는 양군모 사안의 해결과 관련된 논의의 주체에 대한 추동작업을 전개하여, 양군모 사안의 해결여부 방식, 시기에 관한 해당기관사이의 의사결정구조(network)를 형성시키고 그 결론을 조기에 맺도록 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각별동대의 일일 활동보고서와 각 보고서에 대한 총괄검토는 양군모 사안과 관련된 정세를 분석하는데 매우 적절한 기여를 했다.

다만 각 별도대의 활동만으로 양군모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직 정치적 역량을 결속시키고 정치적 결정자의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전체의 활동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것이다. 정보수집과 분석이 양군모 활동의 전부 는 아니다.

③ 구체적 논리대응능력과 기동적 대응

정치적 역량이란 매개 사안이 지닌 정치적 주장에 대해 지지와 관심을 가지고 의사 표시 또는 힘을 행사할 수도 있는 역량이다. 정치적 역량의 크기는 단순히 숫자의 다수로 평가되기 어렵고 해당시기의 정치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치적 기세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평가될 수 있다.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주장과 이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역량은 조직역량과 달리 상시적이고 정제화된 역량이 아니다. 정치정세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 역량이고 일시적으로 사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량이다. 일시적으로 매개 정치사안에 대한 지지와 관심으로 결속된 정치역량은 반대 주장이 강렬하게 제기되면 주춤하거나 이완된다.

따라서 일단 정치적으로 결속된 역량이라도 결실을 맺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등 수구세력의 반대논리(소위 행정논리 등)를 시의적절하게 분쇄해야 한다.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해야 정치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설득력있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역시 다양한 사실들을 수집, 분석해내는 조직질서와 주체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논리와 대안의 제시 그것외에도 주체들의 의지와 분노등 정서를 반영한 집회, 시위, 촉구서한발송, 성명서 전달등의 기동적 대응이 있을 때 수구세력의 준동을 윤택하게 막아낼 수 있다. (참고로 구체적인 대응논리의 개발능력은 전문적인 지식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담보됨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4. 정치적 역량의 결속과 추동**

①국방부 수구세력에 대한 정치적 포위고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역량을 결속시켜 양군모 사안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를 분쇄할 수 있는 정치지형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87년 6월항쟁이후 민주대 독재의 대립구도를 현정부하에서 다시 구현함으로써 가능하다. 군부 독재의 잔재청산과 민주개혁에 반대하는 제반 세력 및 인사 대 수구세력의 대립구도를 가시화 시켜내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에 동의하는 국회(여야)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의 지지와 관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정치적 역량의 결속이다

\*양군모 사안을 중심으로 정치적 역량을 결속시킨다는 것은, 양군모사안의 존재를 알리고 그 의의나 주장에 대하여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각분야의 인사나 세력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입장표명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적 역량의 추동은 아타간의 대립을 가시화 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편에 서는가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며, 지지와 관심을 구체적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활동이다.

**②학계, 사회단체, 종교계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실질적 처리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요하게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결실을 맺게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주체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힘을 주며 계속 추동하는 세력이나 인사(정치적 역량) 내지 기반이 없으면 안된다.

양군모는 작년10월1만인 서명을 통해 각계의 지지와 관심을 모으고 젊은이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임(사회대책위)을 통해 정부와 접촉하여 결단을 강하게 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1월에는 주체적인 서명운동의 대상으로 학계교수님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94년 1월에는 종교계 서명과 학생회의 촉구서한 보내기 작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역량을 결속, 추동시키기 위한 사업은 각계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구체적 방침이 필요했다.

**③교수서명등 대교협**

학계의 지지와 관심을 모으기 위한 사업은 초기에 학생출신이라는 장점 때문에 쉽게 전국적으로 정부에 보내는 건의서에 대한 교수님 서명작업부터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11월한달만에 1350여분의 교수님, 총장님의 서명을 받았고 이와 함께 11월22일 국회청원심사소위에서의 청원인용동의 결과를 받아안고 국공립대 총장 단 협의회차원에서 교육부에 공식건의하였다. 이후 대학교육협의회(전국총장단모임)의장단이 해결가능성이 높아진 국면에서 12월17일 국방부장관과 만나 양군모 사안을 해결하기

**국회의 청원에 대한 여야합의 처리는  
현정권 하에서 국회가 과거청산의 사안에 대해  
유일하게 구체적 입장을 밝힌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

로 의견을 모았다.

교수서명은 기자회견(12,27)외에 대교협과 국공립대 협의회의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서명명부가 아니라 사회여론주도계 층의 입장으로 외화되었다.

한편 개각과 쌀문제 또는 행정부의 술책으로 해결이 지연됨에 따라 학계의 지지와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편지보내기(93년말)'와 계속 대교협의장단이 정부에 촉구하기로 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실제 12월 대교협의 활동력은 강화되었고 상황에 따라 그 활동력이 변하는게 현실임이 확인되었다.

**④종교계서명**

학계의 추구와 정치권의 청원인용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지연시키는 국방부에 대해 도덕적 권위의 상징인 성직자들의 지지와 관심을 외화시킴으로써 조속한 처리를 강제하고자 1월에 전개하였다.

종교단체의 추동전에 상당규모(2천명)의 일반성직자 서명을 받고 그것을 종교계의 신문을 통해 외화시키는 기자회견및 기획기사화 작업이 전개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해줄 사례이고 민주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였다.

학계서명과 함께 상당규모의 서명이 있었기에 서명자 대표가 정치권이나 정부에[문제제기나 해결촉구를 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의사가 아닌 사회적 여론의 반영으로서 힘을 지녔다.

**⑤학생회의 촉구서한 보내기**

사회적-정치적으로 이미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촉구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민자당과 국방부에 신임 회장단 명의의 촉구서한 보내기와 몇몇 수구적 정치인에 대한 경고서한 보내기가 함께 전개되었다. 학생운동 진영에서 막연한 지지와 관심이 아니라 과거청산에 대한 현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도록 하였다.

**⑥정치적 역량의 추동방식**

주로 서명과 그것을 모아서 기자회견하는 것, 해당분야의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시키는 것과 일간지를 통해 여론 확산 등이 있다. 그러나 보다 집요한 활동이 요구되는 국면에서는 직접 몇몇 대상자에게 서명자대표등의 자격으로 시의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⑦정치권추동**

정치적 대립은 사회각계의 지지와 관심을 반영하여 정치권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된다.

93년 상반기에는 야당과 민자당 민주계 대 민정계의 노골적 반대구도가 형성되어 청원의 처리가 지연되었다. 하반기에는 민정계의 소극적 수동적 지지하에 여야합의에 의한 국회청원이 있었다. 그러나 청원인용에 대한 국회의 권고와 이를 관철시키려는 정치권의 노력강도는 또 다시 수구세력의 저항과 각계각층의 촉구사이에서 결정되었다.

한편 국회의 역량은 학계, 종교계, 와 마찬가지로 과거청산차원의 양군모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별도의 정치적 역량이다. 정치권에 존재하는 별도의 정치적 역량을 결속시키는 방식이 청원통과전후로 전개한 국회의원 지지서명작업이었고, 여당50여명을 포함하여 168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냈다. 정치권의 지지와 관심은 국회의원의

에 여야 정당과 정치단체차원의 입장을 공식화 시키는 과정을 통해 와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차원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하는 민주당 농성과 민주당의 입장을 최고회의, 당무회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촉구할 수 있다.

국회의 청원과 이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는 시국사안으로서의 최초이며 현정권하에서 국회가 과거청산사안에 대해 유일하게 구체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사례에서 의의가 컸다.

국회청원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장을병 총장님이나 민주당 당권추동 및 민자당 민주계의 협조등이 있었다. 양군모 사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정서를 청원이용 과정에서 반영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대정부 질의에 따른 상임위 질의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얻어낸것등은 여론화의 계기이자 향후활동의 교두보를 확보할 것으로 평가된다.

5. 정치여론전과 상하층사업 개념들의 차이

-상하층사업은 통전개념이고 물리적 대응을 담보할 규모 있는 계급 조직대중사업과 중간계층을 결속시키는 등의 사업으로 구별된다.

-정치여론전은 그 초점이 주체가 객체를 정치적으로 포위고립하는 일관된 전술구사의 기조이며, 특히 물리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대응을 중심으로 각 역량의 결속과 추동 및 여론화 등을 내용으로 함.



양군모 자료집 70

\*기존의 강집투쟁과의 차이

과거 세차례 싸움은 병무청의 예규를 고치는 수준의 싸움이었고, 대책위의 문제제기가 총장단회의와 교육부를 통해 병무청에 전달되어 타결되었다. 특히 군사정권 하에서 그 취약한 정통성 보강을 위한 불모로 양심수문제를 이용하면서 시국상황에 따라 쉽게 처리함.

그러나 이번 양군모 싸움은 최초로 국방부에 대한 싸움(시행령 개정)이며 과거보다 싸움기간도 길었고, 동원된 정치적 역량의 규모도 남달랐음. 특히 소위 문민정부의 군부에 대한 한계로 인해 약조건 속에서 거의 주체의 노력으로 결과를 쟁취했다는 데 남다른 의의가 있다.

IV 맺으며

93년5월29일 병무청장과의 면담과정에서 병무청장은 "병무청 사안이 과거청산 차원에서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믿고 기다려라"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9월 25일경에 만난 병무청장은 이제 과거청산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 증거들로 조치할 문제라는 양군모사안에 대한 입장을 보였고 10월8일에는 3%구제방침을 국방상임위에 보고하였다. 한편 국방부의 실무자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처리불가입장을 1년내내 고수하였다. 94년 1월말까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양군모사안 해결거부 입장을 고수하다가 정치권의 제동에 걸린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처리로 방침을 바꾸었다.

지난 1년여동안 양군모활동과정에서 몸으로 느낀 것은 복지부동하는 행정관료들의 수구적 태도이다. 민원인으로 찾아온 국민이나 국회를 상대로 한 답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소신도 없고 변화와 개혁이 수동적이면서 오직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는 행정관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여년간 독재정권하에서 관료생활을 하고 출세가도를 달렸

군대에 가고 안가고 보다  
우리 삶을 어떻게 풀어나느냐의 자세 확립이 중요했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던 수구적 행정관료에게 처음부터 무언가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더 이상 현정권이 표방하는 개혁이 국민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분들이 양군모 싸움에 대한 지지와 격려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93년 6월1일 병무청앞에서 10여명이 단식시위를 할 때 노구를 이끌고 생수를 가지고 홀로 찾아오신 김찬국 상지대총장(당시 NCC 위원장), 1년내내 양군모사안에 매달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해결을 모색하셨던 신상우 국방위원장, 당신의 젊은 시절 경험을 이야기 해주시고 기자회견이나 일간지 투고등으로 해결을 촉구해주셨던 이상준 외국어대 사범대학장, 작년하반기 부터 대책위원장직을 맡으시면서 활동방식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고 늘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김재열 NCC 위원장, 젊은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앞장서 뛰어주셨던 박홍총장, 그리고 작년10월 다시 시작할 때 양군모 활동의 가닥을 잡아 주셨던 조성우 평화연구소 소장님등을 비롯한 수많은 교수님, 성직자, 정치인, 선후배들이 있었기에 힘겨웠지만 우리는 꺾이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양군모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지난시기 삶을 평가받고 싶었다

군사독재에서 문민시대로 바뀌었지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역시 정치적 사회적 제약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에게 양군모 투쟁은 지난시기 운동적 삶을 후회하거나 단절하고 개인의 풍요만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에 내몰리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을 되찾고 자기의 역할

을 찾아 가느냐의 기로에서 맞닥뜨린 생존, 삶의 문제였다. 그래서 군대에 가고 안가고 보다도 우리삶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자세의 확립이 중요했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 10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 했지만 다시 시작했고 수구세력에 맞서 활동해나갔다.

우리는 기존의 관성적 방식이나 도식적 사고를 극복하고 주동적이고 창조적으로 활동하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앞서의 정치여론전의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양군모 회원들은 하나같이 대오를 형성하여 싸웠다.

\*현재 우리가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양군모 농성에 참여하고 활동해왔던 우리는 학생운동과 징역살이등 지난시기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민주개혁의 동력이었음을 가족과 선후배들로부터,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인하였다.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를 회복, 강화하고 서로간의 연대와 지지의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는 국방부로 표상되는 수구세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우리가 원래 청원을 통해 정부에 제기한 처리방안이 원안대로 수용된 것이 아니고 그나마 국방부가 숫자조작까지 해서 실제 정부가 취한 조치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는 오류보다는 현정권의 불완전한 과거청산등 한계에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양군모

양군모 자료집 71

활동보고와 평가2

# 양군모 조직은 이랬다

조직부

## I. 들어가며

양군모는 명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진 대중조직도 아니요, 강고한 사상 통일에 기초한 활동가 조직도 아니다.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군문제 한번 잘 풀어볼까해서 모인 집단이기 주의적 모임은 더욱 아니다.

양군모의 조직성격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군모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원칙적인 조직노선과 조직운영 방침에 근거해 1년 이상의 긴 투쟁을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물적 토대가 될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조건과 처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을 지

침없이 투쟁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일단 많은 사람들은 경탄한다. 서로 다른 처지와 조건을 집단속에서 해소하고 통큰단결을 통해 정치적 승리를 쟁취했던 내적원동력인 조직사업의 전모를 바라봐야만 양군모 투쟁의 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직노선 ]

◆ 무릇 모든 조직의 발전은 그 '구성원의 성숙과 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낮은 수준의 결함을 뛰어넘어, 조직의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모든 성원이 발로 뛰고 성과를 함께 공

양군모는 서로 다른 처지와 조건을 집단 속에서 해결하고 단결로써 정치적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유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응집력은 나날이 높아지며 그 속에서 구성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야만 조직의 자활력 또한 비상히 고양될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의 일체화가 조직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라 할 것이다. 양군모는 상반기의 상근↔ 학교 및 지역책임자라는 느슨한 체계상의 약점을 하반기 농성투쟁에 돌입하면서 보다 분화되고 책임성을 공유하는 중층적 조직체계로 전변시킨다. 농성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이 체계속에 다양하게 결합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일을 부여하고 전체의 성과로 수렴하면서 농성참가자는 소극적 결합에서 적극적 결합으로, 사생활 우위에서 공적사업 우위의 원칙을 스스로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외곽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에 대해 계기를 통해 결합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외곽사업을 부여함으로써 비농성역량과의 결합력을 높인다.

◆ 조직질서는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분화시켜 모든 사람들을 포괄시킴과 동시에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해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양군모의 다양한 질서에 결속시키고 위임분공함으로써 농성의 질을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매 시기마다 요구되는 사업을 위한 체계상의 중심이동을 발빠르게 추진함으로써 조직을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데 양군모 조직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사업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새롭게 배치하고

질서를 재편함으로써 조직의 탄력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 것이다.

◆ 모든 조직은 나름의 고유의 기풍을 가지고 있다. 대중조직이든 활동가 조직이든 그 고유의 기풍이 조직의 질과 투쟁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양군모는 무엇보다 '결정하면 꼭 하고야 만다'라는 강한 조직기풍을 자랑으로 삼았다. 저마다 학생운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큰 사업에 대한 대담한 결단과 과감한 집행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큰 성과로 조직의 살을 쪼여나갔다. 그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리가 싹트고, 조직자체에 대한 큰 자부심을 형성함으로써 매우 튼튼한 결속력을 얻게 된다. 교수서명(1,350명) → 양군모의 밤(3천명 참석) → 124 대학로 집회(1천명 참석) → 총력투쟁 별동대 → 종교인 서명사업(2천여명 참석)으로 이어지는 큰 사업의 흐름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투쟁의 전반적 발전과 구성원의 변화발전이 상호역작용을 하면서 양군모는 조직의 질적 발전을 이루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 II. 조직력 확대의 흐름

### A. 상반기 (93년 1월-9월)

1. 1 - 2월 준비기

① 91년 강집철폐대책위 주체들의 경험전수와 새로운 주체들의 인적 준비